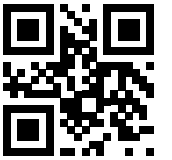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14호 2020년 6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홍남 해변에 있는 주민들이 수송선 LST845로 소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수복을 상징하는 국기게양 장면. 1950년 9월28일 국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중앙청 광장에서 '한도식'을 열었다.



특/집

6.25 한국전쟁 70주년

인간의 일상이 짓밟힌 어떤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곤 한다. 1950년 6월 25일, 땅을 울리는 진동과 함께 북한군은 남한을 침공했다. 3년간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 당했고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삶의 터전은 잿더미가 되었다. 2020년 초 부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6.25 참전용사들 중 1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제대로된 장례식을 갖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야 했다. 우리는 이들 참전용사들과 국군들, 그리고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생존해 있는 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감사와 보은의 의미로 마스크 50만장을 미국으로 보냈다. 미주동창회 동문들도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를 응원하고 희생을 통해 나라를 지켜준 호국장병들과 참전용사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그날이 남긴 상처와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6.25 특집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염원하며 Covid-19 특집 칼럼을 준비했다.

<편집자 주>



주중광(약대 60)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우리 한반도의 역사상 최악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6.25전쟁의 70주년이 되는 2020년, 우리 한민족은 36년간의 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8.15광복으로 온 국민이 해방의 기쁨과 환희를 충분히 느끼기도 전, 해방 5년 후에 같은 민족인 북한에 의해 6.25전쟁으로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역사적인 비극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역사의 불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적어도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우리 세대에서는 6.25로 인해 부모 형제들이 이별하고 부부가 이산 가족이 된, 이런 비극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이 남아있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보게된다. 전쟁의 여파와 참상은 100년 이상 간다는 말이 재삼 실감이 난다.

나는 그 때에 청운국민학교(서울 효자동 소재) 3학년 재학 중이었고, 그날은 일요일이라 동네친구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골목에서 놀고있었는데 동네어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날이 우리민족이 전에 겪어 보지 못한 최악의 전쟁참상의 시작이었다.

<2, 3면에 계속>

공/지/사/향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회의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팬데믹으로 미 전역으로 확산된 코비드 19이 일상을 멈춰 세운지 두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소비가 막히니 생산도 막히는 경제 악화 현실에서 동문 여러분들지혜와 인내로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차원의 단계적 해제안이 제시되어, 지금은 인근 뉴저지를 포함한 대다수 주정부가 코로나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가 큰 뉴욕주도 메트로폴리탄 주변 지역외의 규제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회보에 공지드린 대로, 미주동창회는 제 29차 평의원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종전 6월 대신 2개월 뒤인 8월 21-23일(금-일)이고, 장소는 지난해 평의원회의를 개최했던 Double Tree Hotel by Hilton(뉴저지 포트리 소재)입니다. 뉴욕/뉴저지 주정부의 코로나 사태하의 모임행사 규제 완화 상황을 참고해가며, 6월 중순 경에는 구체적인 개최일정과 협조사항을 임원회의를 통해 공고하겠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문예춘추에 실린 [고양이를 버리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동안 기르던 고양이를 밖에 버리고 하고, 먼 곳까지 가서 버리고 왔다. 집에 오니 그 버린 고양이가 먼저 집에 돌아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가가 어



릴 때, 아버지가 1937년 중일전쟁 때 난징에서 인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만나지 않았으며, 부친이 90이 되어서야 용서했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이 에세이를 통해 “한 국가나 문명의 역사는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것을 포함해 모두를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금년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아직 동족상잔의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며 안고가는 것은 여전히 후손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실의 엄혹함에도, 미주동창회에 보내주는 동문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동창회보를 통해 다양성과 신속성 그리고 동문간, 지역간의 연결성을 긴밀하게 유지하려합니다. 남가주 및 여러지부 동창회 협조로, 현재 1,400여 동문 주소록을 새로 추가하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여러분의 협조아래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00만불 모금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동문 가정에 평온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응남 회장 배상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COVID-19 특집기사 <6,7,14,15,16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참전용사 후원, 우리 후손을 위한 투자”

나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억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쟁으로 인한 아프고 슬픈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어있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우리는 625 한국전쟁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어떻게 그리고 누가 시작했는지도 우리 후손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내가 듣고 보는 대한민국 역사교육은 한마디로 말해 참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전복시켜 북한에 가져다 바치려하는 듯 행동하는 국회의원의 나오지를 않나, 북한 독재자를 남한으로 초청하려는 대통령이 없나, '김정은 칭송회'를 광화문 네거리에서 버젓이 외치는 젊은이들을 방치한다든지, 백주에 미국 대사관저를 담을 넘어 침입해서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한다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 한다”

6.25의 역사, 후손들에 제대로 교육 시켜야

유대인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2차대전때에 일어난 유대인 학살지를 꼭 방문시키는 이유는, 처참했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 미래에 다시 그런 참상과 비극을 방지하고자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625를 겪은 70세가 넘으신 분들이나 또는 철저한 반공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에게는 625는 명명백백한 북한의 침략이란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지만, 전교조로부터 세뇌교육을 받은 젊은세대는 625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을 것이다.

10년전에 고등학교 50주년 동창회가 강원도 양양 해변에 있는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관광 프로그램의 하나로 숙소에서 멀지 않은 통일전망대를 방문하였다. 마침 견학을 온 중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동행했던 공군대령으로 제대한 동창이 나를 끌면서 보여 줄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이 친구가 수학여행 온 여학생에게 질문을 하였다. “625 침략 전쟁은 남한이 시작하였다고 배웠느냐? 북한이 시작했다고 배웠느냐?” 학생은 어리둥절 하며 “그런것은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 했다. 나는 경악하며 이것이 내가 듣고만 있던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고 좌파 교육의 참상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지, 이 모든것이 국력을 분열시키는 지름길임을 왜 모를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75년이나 되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릴 때와 비슷한 형국으로 가지않나 우리 모두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되어있다”라는 명언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

우리부부는 반세기 전에 미국에 학생유학 와서 Medicinal Chemistry(필자)와 Organic Chemistry (아내)를 공부 한 후에 아내 [허지영 (문리대 화학 66-SNU 조지아 지부장 역임)]는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필자는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Institute에서 Anti-Cancer Drug Discovery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38년 전에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eorgia)에 교수로 부임했고, GA에 이사 온 후에 Computer Science계통에 매우 흥미를 느낀 아내는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Computer Scientist로 대학에 재직하였고 저는 2008년 은퇴 후에도 대학에서 virus에 대한 신약개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COVID-19 창궐로 연구실을 닫지않고 계속



해군 소장 Robert Lunney 부부와 함께한 주중광, 허지영 박사 부부

학교에 출근하며 postdoc들과 열심히 일하고있다.

우리의 두 아이들도 가정을 이루고 제 밥벌이를 하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American Dream”을 이룬 셈이다. 은퇴 후 사회연금, 대학연금, TIAA 등을 받으니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여유와 시간이 생기면 사람은 사회적 활동과 친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순리인가보다. 그러나 Athens는 조그마한 대학촌이기에 한인 가족이 몇 안되고, 자연히 고교 동문회, 서울대 동문회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지고, 지인, 교회, 식품점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Atlanta(Athens에서 50 miles)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의 소개를 받아 2011년부터 미군 한국전 참전용사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아틀란타 근처에 3개의 지부가 있고 전 미국에는 300개 이상의 한국전 참전용사회 지부가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Convention이 열리고 있다.

아틀란타 있는 Raymond G. Davis 장군 지부는 회원들이 두 달에 한번 French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지며 25-30명의 참전 용사들과 가족이 모여서 점심 식사와 초청 강연을 들으며 친목과 서로간에 유대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주로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 모이는데 Korean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Association (KIMWA; 국제결혼한 한인여성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매년 추수감사절에도 식사를 성대히 대접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6.25 행사 등 특별행사때는 아내가 운영하는 The Chu Family Foundation (TCFF)에서 후원을 하고 있다.

2019년에는 TCFF 후원으로 미군참전용사들과 한인 다수가 참석해 625 한국전쟁 69주년 기념행사를 하였는데 필자가 625 전쟁 참사와 history를 slide로 강연하고 용사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표시를 전했다. 특히 우리들이 보람을 느끼는 일은 Korean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KASF) 통해서 Scholarship Program for



TCFF 후원으로 미군참전용사들이 참석한 6.25 한국전 69주년 기념행사.

the Descendants of American Korean War Veterans(AKWVS)을 시작한 일이다. TCFF 재단이 2014년부터 후원을 시작하여 지난 6년동안 매년 American Korean War Veterans 직계 자손들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 12-15명에게 \$2,000씩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리 저녁을 같이 할 때 이야기하곤 한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 세기에 들어와서 625 라는 동족상잔의 큰 고난을 겪

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에 “오늘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된 것은 1882년 조미 통상조약 이후로 우리나라 독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예언적 성명서 였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은 이 조약에 함축되어 있음을 지

인식은 미국에 사는 소수민족이 음으로 양으로 항상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용만 할 줄 알지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적다는 것이다. 주류사회의 이러한 편견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 소수민족도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한국인도 미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Korean American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것은 우리후손들에게 선조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에 무대에 훌륭하게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은 Korean American 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후손들을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재단 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나 뜻있는 한인들이 동참하는 여러가지 주류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각자 지역 사회와 특히 참전용사들을 기반으로 한 지원파를 확보하는 하는데 공헌한다면 나아가서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 19세기에 일어났던 중국사람들에 대한 천대와 일본인들이 2차대전시 당했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 한국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SNU 동문들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주류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과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 패밀리 파운데이션(TCFF)통해 미 참전용사 후원

초청 행사 마련, 6년간 직계 자손들에 장학금도 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의무

었지만 국가적으로 큰 은인, 즉 미국이라는 행운을 만났다. 우리 5,000년 역사 이래 이토록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 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난 70년 전이나 앞으로 다가올 70년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확고히 믿는다. 이조약 의 주체택자인 일부 중북세력들이 반미 구호를 외친다는 것은 유식한말로 mild 하게 표현하면 '어불성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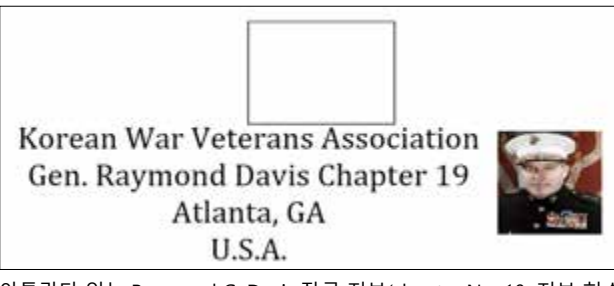
우리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의 1953년 한

두번째 이유는 많은 주류사회의 사람들의



American Korean War Veterans 직계 자손들에게 장학금 수여후, 수여학생들과 기념사진.

***주중광 교수** 1964년 서울대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한 주 동문은 조지아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신약개발에 헌신, 세계적인 약학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주중광허지영 동문 부부는 서울대에 30억 역원을 약정하고 총 25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틀란타 있는 Raymond G. Davis 장군 지부(chapter No. 19; 지부 현수막-photo No. 1: 우리부부가 design)



/ 회고 /

6.25 한국 전쟁과 나



김진우(의대 58)

전쟁은 갑자기 찾아왔다. 1950년 70년 전 이었다. 부산의 분향은, 군수품 신고온 UN 참전국 상선과 전함들로 희망 찬란한 야경을 이루고 있었다. New York Mahattan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 불꽃놀이 같았다. 1950년 6월 25일,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4동,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적산가옥이 도열해 있는, 언덕위의 집들은 최고의 Ocenview를 보여주고 있었고 나는 그곳에 살았다. 피난 온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옆 동네 경남도지사(양승봉) 관저에 살았고, 덕택에 우리동네 길을 깨끗한 모래와 자갈로 포장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우리 4형제를 일본 경도(Kyoto)에서 낳았고, 형제 3명은 SNU를 졸업했다. 둘째 형은 고 1때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에서 SNU에 입학했고, 셋째 형은 법대, 나는 의대 1958년 class였다. 1950년, 전쟁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부친은 일본의 combined fleet(연합함대)가 mid-way 해전에서 참혹하게 참패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패망을 예감했다. 그리고 조기 귀국을 서둘렀다. 1944년 부모의 고향, 경남의 령으로 귀국했고, 1945년은 서울 마포 공덕동에서 보냈다. 마포 전차 종점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옛날의 전차, 나는 하루종일 쓰다 버린 전차 승차권을 수집하면서 공짜로 전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기억, 왕복 풀위에서 때굴때굴 굴렀던 추억을 가지고 1946년 부산으로 왔다. 부친은 해수부소속 선박수선소(적기) 소장으로 부임했고, 우리 형제는 행복한 유년기

를 부산 초량에서 보냈다. 형제들은 부친의 근무소, 배공장에 놀러가서 부산항 물위에 떠돌아 다니는 water proof oil paper로 packed된 chocochip cookies 등 , 미군 c-ration box에서 흘러나온 floating cookies를 수없이 collection해서 먹었다. 1950년 6.25 전쟁은 아버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일본의 패전과 그 처참한 공습과 죽음을 기억했다. 우리 4형제는 밤 중에 급하게 부산에서 아버지의 고향 경남 의령 큰 아버지 댁으로 보내졌다. 2차 대전때 일본의 대도시들은 무자비한 공습과 참살을 기억하고 부산같은 도시를 피해야겠다고 오판한 것이었다. 1950년 7월의 여름은 더웠다. 의령에 온지 3일만에 진주남강 방어선은 무너졌고, 투입된 미군은 GMC로 패퇴하고 그 뒤를 한국군이 철모에 흰띠를 붙히고 걸어서 가고 있었다. 후퇴하는 미군차량이 만들어내는 군복 국도의 흙먼지는 포물라 가로수를 뽕얇게 만들었다. 국도 양쪽에 떨어진 c-ration에서 나온 캔, coffee,cream and sugar packs 등 기억에 남는 highway decoration이었다. 우리형제는 sugar만 열심히 모았다. 후퇴 3일전 의령에 온 신성모 국방장관의 운서수(사촌매형)는 부인과 가족을 부산으로 피난시키는 차에, 부친은 우리 4형제도 부탁했다. 자리는 하나밖에 없었다. 부친은 눈물과 함께 둘째 형을 뺐아갔다. 우리 3형제는 적진에 남게 되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입성하는 인민군 대열은 paris에 입성하는 Nazi 독일군의 보무 당당한 대열이었다. 20

년 국공전쟁의 veterans로 팔로군(조선족 중공군) 106,10T 사단은 조선 인민군 6.7 사단으로 개편되어 투입 되었다. 6사단장 38세의 방효산 7 사단장 최용근, 그들이 일주일만 전라도 전선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부산은 함락되고,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형제는 3개월간 인민군과 함께 살았다. 대부분의 인민군은 전라도 농촌에서 징집된 청년들이었다고 기억된다. 1950년 여름밤은 그렇게 길었다. 진해-마산 전투로 투입되는 인민군은 마지막 저녁, 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노래 불으면서 전선으로 사라졌다. 밤마다 날마다 군 전매청은 등이 났다. 마지막 담배는 마른 호박잎을 가루로 만들어 동종이에 말아 피웠다. 양말은 없었다. 사각형 천을 접어 신고 뒀었다. 소, 말, 돼지, 닭, 개는 다 잡아 먹어 없어졌다. 3개월 동안, 매일 동굴에서,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면서, 폭탄과 포탄에 불탄, 화약냄새나는 보리를 삶아서 간장에 비벼 먹었다. 꿀맛이었다. 낮에는 벼 이삭에 붙어 있는 메뚜기를 잡아 참기름에 볶아 먹었다. 좋은 protein공급이었다. 강가에 가서 물장난하고 인민군들이 머리를 깎아주고 북한에서 만든 비누로 머리 쇄똥을 뽀뽀 긁어 주었다. 장난감이 없어 155미리 곡사포(Howitzer)망치로 포탄 가운데를 때려서, 화약통을 떼어내 pellets을 뽀아 불꽃놀이 하는 기억은 오금을 저리게 한다. 9월이 오고 인민군은 부상자를 gurney에 싣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왔다.

전쟁은 수많은 상처를 남겼다. 우리 사형제가 사랑했던 빨간벽돌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미군의 속소가 되었고 우리의 교실은 하늘을 지붕삼고 진흙땅에 앉아 공부했다. 학교가는 길에는 주한미대사 무초관저가 있어 아침마다 뿜어 나오는 oil cooking 냄새는 우리들의애를 곱였다. 소를 몰고 가서 풀먹이고, 짚신으로 신발 만들고 산에가서 나무해, 지게로 짊어지고 내려왔던 3개월 보다는 행복했다. 전선에 보내는 위문편지, 위문품등 우리들의 중고등학교는 학도 호국대였다. 세월은 흘렀다. NewYork Mt. Sinai병원에서 training받으면서, Arab-Israel전쟁에서 개전 일주일만에 Arab지도자 Nasser이 비밀리에 가져온 소련제 SAM missile로 Israel Tank와 전투기가 파גע되어 위기일때, NY American Hebrew Association에서 긴급 모금 운동으로 Osrael을 구조해 결국 전쟁승리로 이끈 미국 Jewish Society의 놀라운 재력과 정치력에 엄청난 감동과 영감을 받았다. 1970년 Pueblo납치, 정찰기 격추로 한반도 긴장시에 MGH에서 수련중이던 나에게 surgeon들은 " why we have to be there? Goddam Korea" 라고 외쳤다. 나는 "who divided my country? You goddam Yan-kees". "Why don't you read Winston Churchill's memories(Nobel 문학수상작)" 대답했던 기억은 작금의 한국을 보면서 착잡한 감회를 감출수 없다. 아! 나는 "Korean-American"인가 아니면 American-Korean인가.

나의 6.25는 색 다른 한국 전쟁의 여정이었다. 2년 전, 나는 ‘Prayer for Peace’라는 회고록을 영문으로 출간하여 본지에도 소개된 바 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평안북도, 압록강 가까운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북한 인민군에 징집되어 3천리를 걸어서 경상남도, 남해안의 전투지까지 나왔다. 압록강을 거쳐서 남해안까지 삼천리를 종단한 것이다. 하지만, 남해안에 도착한 직 후,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과 함께 미군총공격이 시작되어 인민군은 전면 후퇴를 하게 되었다. 우리 부대는 밤 낮으로 북쪽으로 도주 행군을 계속하여 진주 남강에 도착 했을 때, 모두 피곤하여 강 언덕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이 들었다. 폭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니 미군 탱크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총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나는 강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공중에서는 미군 비행기들이 우리를 향해 저공 사격을 하였다. 인민군 부대들은 지리멸렬되고 많은 병사들이 죽사 하였다. 나는



임이섭 (의대 54)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아서, 나의 부대를 이 탈하였다. 나는 어렸을 때 사친 절친한 친구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의 부모를 따라 월남하여 충청남도에 살면서 편지 거래를 하여 그의 주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그 친구 집을 찾아 밤낮으로 산 길을 헤매던 중에 공주에서 지방 자치 대원에게 붙잡혀 국군에 인계 되어 포로가 되었다. 나는 밤새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였는데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다. 나를 인계 받은 국군

부대장은 나의 고향 선배로서, 나를 알아보고는 나를 분리시켜, 복전하는 국군에 군속으로 편입시켜 주었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 이와 같은 극적인 장면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 기념관에 표현되어 있는데, 국군 장교와 인민군 병사가 전쟁터에서 서로 포옹 하는 장면을 ‘형제의 상’이라는 동상으로 세워졌다. 사실상 6.25 전쟁은 한국의 형제들이 서로 싸운 부끄러운 전쟁이었다. 70년이 지난 지

금도 북한은 아직도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군 복무 중에 불행하게도 나는 건강이 악화되어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마산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제대를 당하였다. 갈 곳이 없게된 나는 참으로 암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전화 위복이 되었다. 제대 후, 곧 바로 고교 과정을 거쳐서, 휴전 다음 해, 1954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나에게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단신으로 고학하여 졸업 할 수 있었다. 전쟁에서 겪은 처절했던 나의 체험은 나에게 평화를 위한 미술가가 되는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국전에서는 4.19을 상징하는 ‘승리한 군중의 합창’이라는 대작을 출품하여 특선이 되었다. 워싱턴과 시카고에서는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미술 전시회를 심어 차례 거쳐 나름대로 평화를 외치며, 평화를 위해 기도 해 오고 있다. 회고하면, 나의 6.25는 기적과 축복의 연속이었다. 감사할 뿐이다.

/ 회고 /

나의 6.25 전쟁 여정

/ 역사와 삶 /

6.25와 교육 그리고 백낙준 선생



정홍택 (상대 61)

사람이 살다보면 아주 평범한 일이 번개처럼 특별한 사건으로 발전할 때가 있다. 어느 날 컴퓨터 Website 한 곳에서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다. ‘Best of Korea (bestofkorea.com)’라는 Site에 <What the U.S. can learn about education during crisis from South Korea’s wartime>가 실려 있었다. (원문은 영어인데, 한글로 축약 번역을 해 보았다) <Quote> 1950년에 발발한 한국 내전(6.25)은 잠깐 사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혹독한 추위 또한 공산군에 못지 않은 무서운 적이었다. 섬세 영하 수십도의 추위에 군인과 민간인들이 수없이 죽어갔고, 학교 시설 중 약 40%가 파괴되었다. 국민들은 급히 집을 싸들고 경성도로 피난가니 모든 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문교부 장관은 전국에 개교 명령을 내렸다. (장관은 백낙준 연세대 총장이요, 또 본인의 친할아버지이기도 하다) 그 당시 남한의 전쟁 참상과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비교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되겠지만, 전국 학교의 휴교로 인해 학교 커리큘럼이 엉망진창이 되고 원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시 나의 할아버지가 교육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하셨나를 상기하게 되었다. 전쟁 중일지라도 학생들의 교육만은 중단할 수가 없다는 신념 속에 할아버지는 전국 학교의 개학을 지시했다. 물론 코로나가 한창인 현 시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 사항임에는 틀림없고, 전국 휴교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 교육당국은 한국전쟁 중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 수는 5천만 명이 넘는다. 이 학생들이 현재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선생님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학부모들에게 넘어갔다.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 공부 자료의 제한성, 부모들의 참용성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서 보듯이 위기의 시간은 바로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전쟁이 계속되고, 학교 건물이 거의 파괴되었고, 전 국민의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데, 개교는 말도 안되는 명령이었다. 전국각지에서 선생님들은 문교부 장관에게 항의했다. “학교 건물이 없는데 어디서 학생들을 가르치란 말입니까?” “교실이 없으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르치시오. 강변 모래사장, 산기슭도 좋소.” “교과서도 없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생님들, 당신들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인생 교과서! 인생(人生)을 가르치세요.” 이 대답을 듣고 선생님들은 즉시 행동했다.

선생님들이 모여 피난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이 모였고 공부가 시작되었다. 공습으로 빼만 남은 옛 기차 정거장에서 기적소리 대신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가에서도, 산자락에서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동네마다 모금운동이 일어나 공부에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해 주었다. 1951년 봄에는 60%의 학교가 개교했고, 전 학생의 2/3가 등록했다. 휴전협정 후에도 한국의 교육열정은 계속되었다. 이런 열심이 전후 30년만에 (한 세대 안에) ‘한강의 기적’을 낳게 했던 것이다. 1945년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문맹률은 78%였는데 현재는 1% 미만으로 떨어져서 세계 문맹 최소 국가로 성

귀하의 글을 읽으면서 70년 전 피난시절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 80년을 살아오면서 내 소년 시절의 기억은 까마득히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흑백사진을 보며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동네마다 모금운동이 일어나 공부에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해 주었다. 1951년 봄에는 60%의 학교가 개교했고, 전 학생의 2/3가 등록했다. 휴전협정 후에도 한국의 교육열정은 계속되었다. 이런 열심이 전후 30년만에 (한 세대 안에) ‘한강의 기적’을 낳게 했던 것이다. 1945년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문맹률은 78%였는데 현재는 1% 미만으로 떨어져서 세계 문맹 최소 국가로 성



백낙준 선생



Woody Paik



6.25 전쟁의 영향으로 노천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창했다. 국제 학술 평가에서 한국은 계속 1등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해방 당시 국민당 소득이 \$100도 안되는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 12번 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195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35세 였는데 오늘날은 83세로 늘어났다. 그 성공 요인이 교육에 있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평소에도 나의 할아버지는, ‘교육이 우리 가정을 만들었고, 나라를 살렸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7살 생일 때 할아버지는 두툼한 책을 선물하셨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전기였다. 어린 내가 어찌 그 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만, 할아버지도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 지금도 나는 그 선물을 간직하고 있다. 장성해서 그 책을 읽어보니 윌슨 대통령은 처음 교육자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올 때 할아버지는 내게 Woody (Woodrow의 애칭)란 미국 이름을 지어 주셨다. 필연인지 우연인지 나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깊은 뜻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 한국 발전의 밑거름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Woody Paik은 현재 미국 교육 커리큘럼 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즉시 답장을 썼다. 친애하는 Mr. Woody Paik(先生)을 가르치세요.” 먼저 Mr. Paik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구요? 글쎄, 그 사진 속에 내가 있더라구요. 피난시절, ‘금정피난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제일 앞 줄 아란 웃을 입은 학생, 그건 바로 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 때 나는 열한 살이었습니 다. 어느 날 얼마는 나를 학교에 데려가 4학년에 입학시켰죠. 이 곳은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와는 너무나 달랐습니 다. 여기는 노천(露天) 교실이 전부 였어요. 산자락을 깎아 평지를만들어 여기저기 세워 놓은 칠판만 보일 뿐입니다. 공부 가 시작되던 학생들은 칠판 앞에 모여, 제각기 앉을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노천교실이라 비가 오면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 다. 이 흑백사진을 보면서, 내 머리 속 기억창고는 70년 전 기억을 하나씩 끌어내놓고 있었 습니 다. 내 뇌(腦) 속, 제일 외진 곳, 잊혀졌던 추억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14후퇴 피난을 나는 동래온천장 변두리로 갔습니 다. 부산에서 전차와 기동차를 타야 가는 곳이지요. 다행히 동네 초가집 사랑방을 얻어서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날 들에 비하면 그것도 큰 행운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 가니 캄캄 놀랄 일이 생겼어요. 운동장에 커다란 텐트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천막교실이라요. 텐트 속 칠판 앞에는 빈 쌀가마니가 나란히 놓여있어 우리는 그 위에 털석 앉아 공부했습니다. 공부 하다보면 공동이가 조금씩 뜨뜻하게 젖어옵니다. 땅의 물기가 술술 가마니를 통해 올라온 것이죠. 수

업시간이 끝나, 일어나면 모두의 공동쪽에 동그런 원이 하나씩 그려져 있었습니 다. 얼마있다가 또 풍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풍금에 맞추어 배운 노래는 주로 행진곡 군가였지만, ‘나의 살던 고향’이나 ‘아 목동아’ 같은 노래도 배웠습니 다. 학교가 끝나 집에 가는 길에 학생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식 노천(露天) 이발소이지요. 웃음띤 얼굴에 수염이 등성 등성 난 아저씨가 이발사였습니 다. 그 옆에는 나무 의자, 물 양동이 그리고 나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 속에는 바리깡과 기타 몇몇 이발 기구들이 들어있었죠. 가끔 염마는 싫다는 나를 강제로 그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깎게 합니다. 많이 아팠어요. 바리깡의 날이 무디어서 머리의 반은 깎이고, 반은 뽀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우리 식구는 한도하여 옛 우리집에 왔고 학교도 전에 다니던 돈암국민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경북중학교에 입학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별안간 종이 울리고 우리 모두는 운동장에 나가 정렬해 섰습니 다. 정부의 높은 분이 와서 말씀하신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 교단에 어떤 분과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분은 얼굴이 거무티티하고 키도 몸집도 아주 컷습니 다. 교장 선생님이 그 분을 소개하셨는데 성은 백(白), 그리고 이름은 금방 잊었습니 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나 하시겠지, 뭐..... 그런데 그 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뭔가 좀 달랐습니 다. 체구만큼 목소리도 우렁차어요. 생전처음 들어보는 굉장한 웅변(?)이었습니 다. 내가 얼마 전에 읽은 플루타크 영웅전이 떠올랐습니 다. 씨저의 시체 앞에서 로마 시민들에게 브루투스야 옥타비아누스는 서로 상반된 연설을 하며 민중에게 호소하는 장면이었죠. 말씀을 들으며 나는 내가 마치 로마 시민이 된 기분이었어요. 큰 감동! 지금도 그 분의 목소리와 제스처가 생생히 떠오르니까요. 제 나이 내년이면 80이 되지만 그 날 그 때의 흥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Mr. Paik의 글을 읽으며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강의 기적’의 밑거름을 뿌린 분이 바로 백낙준 선생이셨군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포괄 진정한 은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학교는 쉬지 말아야 한다는 그 분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나는 몇 년을 피난민 신세로 하송세월 했겠죠. 요즘 중동의 참화 속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볼 때, 저 애들은 왜 백낙준같은 선생이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 다. 감사합니다. 백낙준 선생님! 그리고 Mr. Woody Paik.



김해암 (의대 53)

/ 정신과적 분석 /

코비드 팬데믹과 인간의 정신건강 ①

너나 할 것 없이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면서 이 절박한 시점에 집안 소제, 옷 정리, 책 문서 정리, 그리고 유언 및 재산 정리 등 바쁘게 지나면서 밀렸던 수심 권의 책을 읽으며 느끼는 것이 왜 우리는 여유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나? 문명의 가속화로 죽이듯이 살아온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하나? 하는 것을 이번 “룩다운” 과 활동제동(사회적 거리두기)을 통하여 경험한다.

2018년 가을에 콜롬비아 대학 인간학 연구실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제목이 “문명의 이기인 책의 분실” (동양의 분서갱유) 과 “지식의 유용성” 을 가지고 토론 했는데, 한 분이 질문하기를 “오늘날 디지털 문명의 발전으로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스피드가 돈이고 돈이 스피드를 가속화 하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도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가속화 현상이 일시적 유행처럼 살아지거나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것 같다고 하였다. 오늘의 현상을 내다보고 한 말 같다. 교재용으로 읽은 책중에 1976년에 나온 체코의 작가 Bohumil Hrabal의 “Too Loud A Solitude” 라는 책에서 프라하의 성벽 밑에서 유태인 나치가 몰수한 수 많은 책들을 처분하는 기계를 조종 하던 사람이, 인간의 지식의 원천인 책에 대한 원한으로 분풀이를 하고 책을 불사르거나 처분하는 한 역할을 맡은 가운데, 이 독신 남자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무수히 쌓아놓고 종이 속에서 살며 번식하는 쥐들과 함께 살다 자기를 따라와 사랑해 준 집사 젊은 여인이 말 없이 조용히 살다가 결국 나치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 후 수십년 자기도 책으로 지식을 추구하던 삶을 마감하면서, 그 집사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자살하는 절망을 “소리 없는 고독” 로 그려낸 책에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도자들이 지식인들을 학살하고 책을 불소 시킨 경우를 보면, 왜 지식을 인간들은 추구하여야하나? 하는 난제를 다루게 된다.

역사는 나선형 같은 돌레 바퀴를 돌면서 흘러가다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수십년 동안 디지털 혁명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의 문화는 가속적으로 발전해오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명의 가동이 멈추는 상태로 돌변했다. 이런 때에 문명이 어디로 흘러가나?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발전해 가나를 생각하게 된다.

공포감, 불안, 우울이 심해져 절망에 달하는 인간의 정신상태를 어떻게 보호하며, 가호하며 또 치료를 시도하나 하는 명제가 우리 세대를 뒤흔들고있다. 원시시대 부터 인간

들은 종교를 만들고, 전쟁을 일삼음으로써 인간의 잠재적 역량과 절대성 앞에서 고난을 묵묵히, 소리없이 받아드리며 수 없이 많은 싸움과 세계대전을 겪으며 살아왔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명의 기계, 도구의 상황을 점검하며, 마구 달려가던 가동을 멈추고, 인간의 때 주검을 공포심으로 바라보며 우리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력을 시험해 보려면 무엇보다 먼저 역사를 알아야한다. 역사의 흐름은 마라톤 주자와 비슷한 데가 있다. 여러가지 마라톤과 그 많은 주자인 인간이 온갖 질병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될 날은 아마도 영원



이 없을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여 핵노로지 우선 및 과학 만능주의를 부르던 21세기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범으로 인류는 정신을 못 차리는 혼란에 빠져있다. 자연과 환경의 파 괴며 기후의 온난화로 오는 문제 때문이다.

코비드-19의 상태를 돌아보자. 일차적인 예방에서 실패한 나라들은 2차적으로 질병의 전염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출처를 찾고 확산을 억제 하려고, 3차적으로 백신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또 특수 치료약의 발명과 치료방법을 고안하는데 열중하고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어떻게 그것을 정취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이 글에서 첫째, 코비드가 가져오는 개인,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공포, 절망감 등에 대한 고찰과 둘째로 팬데믹이 가져오는 인류 문명에 대한 영향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사람들은 슬픔, 절망 그리고 불안에 떨고있다. 갑작스럽게 팬데믹으로 변진 바이러스의 위력에 인간은 새로운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현실에서의 생존의 문제로부터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질 정신질환의 연속과 전망을 수십년으로 내다보는 자들도 있다.

중국은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함과 동시에 정신과 의사 와 심리치료사들을 동원하여 우한으로 파견 했다고 한다.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책을 적용 한 조치였을 것이다. 수 많은 어린이들, 무고하게 처벌 대상이 된 부모들이 불안에 허덕이는 상황을

보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참사를 당하면 응급치료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3) 피해자가 뚜렷한 정신질환이 없으나 겁에 질리거나, 참사를 당하면 불안 초조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하며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4) 피해 전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치료도 받아 보고 열심히 복약도 하는 사람들로서 기존의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 경우인데, 기존의 정신질환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어 입원 치료도 필요하게 되는 경우이다. 우울증의 경우, 이런 현상을 “복합 우울증”, double depression, 이라 부른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써 예감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닥쳐올 공포에 대한 예비로 약을 준비하거나 복용하며, 심리적 상담이나 치료를 구하는 사람 들인데 자기 분수에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다가 자기방어기전이 무너지면 자살이나 자학적이나 타학적 행위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매일 같이 정신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말하자면, 명상을 시간을 정해 놓고 한 다든지, 육체적인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종교인이라면 기도나 찬송을 하는 등의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프로이드는 1938에 인류에게 닥쳐 올 재앙을 예언하면서 인간의 문명의 운명에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글 “The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을 발표했다. 1930년에 첫선을 보인 후에 수정을 거쳐 발표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이드의 학설을 요약하고 그 장래를 예언한 귀중한 문헌이다. 이 글의 골자는 인간의 근본적 근성, 에로스와 사나토스 (생과 죽음의 본능)는 끊임 없는 갈등에 빠져가다 숫아 날 길이 보이지 않으니 인간의 문명은 망한다는 비판적인 결론을 내린다. 있다. 프로이드가 런던에서 후두암으로 사망한 1939 년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으로 몰고 들어가는 처참한 때이므로 비판론적 세계관이 나왔다고도 하나, 정신분석이 개인을 위주로 다루는데 있어, 인간 본능의 사랑과 죽음의 싸움에서 개인의 삶은 주검의 본능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을 자기에게 돌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밖으로 상대방을 공격해 나가는 인간의 성격을 바꾸기는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었다. 핵 전쟁의 위태로움을 예견 한 것 같다. 그후에 많은 정신분석의 수정론, 또는 대처하는 분석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만족 할 만한 학설이나 이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의학적 분석 /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명과 코비드의 귀환



강수상 (의대 47)

이야기뿐만 들은 이런 일을 우리 평생에 만날 것을 예측은 고사하고 상상이라도 해 본 일이 없었다. 지구에 사람이 정착해서 단 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난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으로 알려진 13세기에 10년 가까이 유럽 일대를 휩쓴 흑사병은 지구의 인구를 반 이하로 줄인 참사였다고 하며 그 뒤 1918년에 와서 Spanish flu라는 악성 독감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미주는 물론 중국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에도 퍼졌다. 일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일년 동안에 전쟁의 희생자보다 월등하게 많은 5천만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한다. 한국에도 “왜고뿔”이라고 일본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해주신 기억이 난다. 당시 한국 인구 759만에서 38%가 감염되고 6만 이상이 사망하여 추수도 못한 농가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대는 치료는 물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1998년에 이제는 변질이 심해 조직은 회수를 못했으나 병원체인 바이러스 안에 손상된 핵산은 회수가 되어 5년 이상의 연구 끝에 RNA의 전모가 밝혀졌다. 그 당시의 일을 풀어 내면서 이 일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비드19의 문제를 풀어 내는데 불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

확실한 사실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접근이 없는 한 100년 전과 비슷한 과정을 이번에도 밟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시도하고 있는 치료제와 감염의 예방법이 순조롭게 작용된다면 이것 만으로 문제는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대하고 잡다한 대상을 취급할 때 현실적인 문제로 차질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1918-19

년1년 동안의 발병이나 사망의 과정을 살펴보면 질병의진행 패턴이 지속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한달 정도의 잠복기를 사이에 두고 2-3개월의 활성화가 3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눈이 녹아 없어지듯 모든 것이 사라진 사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사망률의 심한 차이를 관찰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감염후 첫 파동이 생긴 후 한달의 잠복기는 3 개월의 대 활성기를 가지고 다시 활성화와 잠복기로 연결되었으나 파동기는 세계 각처에서 거의 비슷한 때에 가라앉고 환자의 사망

런 대사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잠복기와 활성기를 반복하며 고식적 해결은 될지 모르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문제는 첫 번째 휴식은 대 성공이었으나 다음 번 활성화는 같은 절차를 따랐지만 영원한 휴식이로 끝이 났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비록 시간이 가며 감염에서 회복되면서 사망 인구가 줄어 든다고 해도 활성화와 잠복기의 반복이 계속되지 못하고 세 번째 종식되는 방식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점은 이 현상이 환경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병원체의 변화로 결정된 것으로 이 이상 본

흑사병, 스페인독감 등 바이러스와 전쟁 이어져

코비드, 백년간 이어진 바이러스 변이의 결정타

이 맞았다 (Wikipedia 참조). 이 사실은 RNA와 이를 단순히 짜주는 것만이 모든 것인 바이러스에서 한사람의 일생보다 더 오랜 백 년이란 시간이 걸려 이렇듯 특이한 변이체가 생겨 그렇게 많은 수로 번식하며 대단한 독성으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Pandemic 병원체가 생겨난 과정 즉 1918-1919년에 가진 파상적 특징을 나름대로 추리해 본다면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빈약한 생명체의 조건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사환경을 가지고도 못하는 비상한 번식력과 독성을 발휘 하는데는 이 일을 살려낼 간헐적 지원이 동원되어야 할수 밖에 없는 대사과정이 필수적인지 모른다. 이

래의 병원체가 아니라고 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변화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거나 같은 결과를 보았다면 같은 병원체로 존재했던 수명은 끝이 난 것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변종에서 무작위로 얻는 그 변이체가 선택이 특이하면 할수록 상상을 뛰어 넘는 드문 일이며 비록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동안 유지 될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흐름어지는 위악성을 가진 경향을 가질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 점은 치료 제제 연구에 큰 이점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Coronavirus는 2000년 초기 유행한 SARS와 가까운 병원체이지 백년전 유행한 스페인 독감의 병원체인 H1N1과의 분자 구조적인 관계는 소원하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지금 같은 악성 질병이 Pandemic으로 언제 어떤 병원체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아내기 쉬운 일이 될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염병의 주기성이 병원체의 전염성이나 독성이 Pandemic으로 되는데 어떤 미생물이 어떤 숙주를 거쳐 몇 단계의 변이를 밟아야 하는데 얼마만 한 시간이 걸릴 것인지 추적이 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변이가 제일 빠른 바이러스 특히 RNA 바이러스를 생 각하고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호흡기 질환이 두번을 달아서 생긴 점이 주목되지만 이와 연관 없이 면역학적으로 소원한 바이러스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면역에 의존하는 예방책과 동시에 Spectrum이 큰 항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치료 제제의 연구가 Covid 19 이후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많은 숙주를 거치며 수없는 변이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시간이 적어도 백년을 소비하며 생긴 Pandemic 이지만 3번의 파동기를 넘기지 못하는 Coronavirus 19(SARS-CoV-2)가 SARS-CoV와 유사한 점은 재발의 문제에 대하여 놓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돌연 변이가 어떤 특정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변이가 이렇게 가까운 시간을 두고 일어난 사실은 믿을만한 통계가 없이는 예측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Coronavirus 19이 외형적으로 SARS-CoV와 유사하다고해서 SARS- CoV2로 보기 보다는 백년이 넘게 된 Precursor로부터 무수한 변이를 걸쳐온 결정타로 보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2020 스페셜 이벤트

8.15 광복절
특별원고 모집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 암제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8.15 광복절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주 서울대동창회에서는 불의와 암제에 굴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빛나는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전해줄 소중한 글을 모집합니다.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글의 내용	8.15 광복절에 대한 의견이나 기념할만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글의양	500 단어 (글자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십시오
원고마감	2020년 7월 10일(토)

***원고 보내실 분은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헌신·희생에 깊은 감사”

서계선 동문, ‘한국군의 날 행사’ 초청 연설



서계선 (음대 63)

포트 레븐워스(Fort Leavenworth) 한인 커뮤니티는 3월 13일 캔자스 리븐워스에 있는 June's Northland 연회장에서 연례 한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 한 연합군 한국연락담당관 한중훈 중령은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우정을 나누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놔두고 전쟁터로 갔을 때 그들은 불과 18, 19, 20세였다. 그들이 전하는 전쟁의 공포와 그들이 겪은 희생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킨다. 전쟁은 우리가 하나가 될때 강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날 작가 겸 첼리스트인 서계선(Therese Park)동문이 메인 강연자 및 연주자로 참석

했다. 그는 부산에서 자라난 어린 시절 전쟁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Home on the Range"와 "Danny Boy"를 연주했다. 서 동문은 "부산은 1950년 7월 6일 미군이 상륙한 곳이었다"며 "우리 학교 아이들은 당신들을 보고 열광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트럭이 지나갈 때 '빅토리 U.S. 빅토리 U.S'를 외쳤다"며 "9살 때의 나는 내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알지 못했고, 내가 미국땅에서 이렇게 당신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동문은 첼리스트로 캔자스시티 필하모닉의 첼리스트로 발탁된 뒤 1966년 10월 영구비자로 미국에 왔지만 미군이 전쟁 중 한국을 위해 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을 도왔고 우리의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를 실천함으로써 굳건한 인도주의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 동문의 감동적인 사연에 감사함을 전했다.



▲연합군 한국연락담당관 한중훈 중령
▶첼로 연주자 서계선 동문

연합 무기 센터 훈련 부사령관인 스티븐 마이클 장군 "625전쟁에서 우리의 성공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 많음에 감사하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이 보여준 고마움을 보면 더욱 겸손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사령부 겸 총참모부 국제군 학생처장인 집페인 또한 서 동문의 연설에 감동했다고 말하며 "나 또한 한국전 참전용사로 그곳에 주둔하면서 정말 한국군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을 많이 키웠고, 한국 장교들의 헌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 군 장교들이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배우



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굳건한 친구, 동맹국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이어지길 기원했다.

시카고 동창회, 화상으로 독서클럽 진행

행사 일정 취소 및 연기... 9월5일 장학생 접수 마감

날이 갈수록 Pandemic이 더 기승을 부리는 듯 시카고 지역 매일 확진자 수가 5월10일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년도 시카고 동창회에서 계획중이던 행사에 많은 변경이 필요하게 됐다. 먼저 5월에 계획했던 춘계골프와 Newsletter 발간은 취소되었다. 또한 6월에 계획한 야유회는 우선 8월 22일로 연기로 놓았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후학들을 위한 장학 사업은 본 동창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므로 장학생 선발 공시는 8월초에 시작해서 9월중 선발을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7월 11일에 예정된 독서클럽 모임 (홍혜례, 박종희 주관)은 Webex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음악 동아리에서는 8월에 Ravinia Festival에 참석 특히 Eschenbach's 80th Chicago Symphony Orchestra and Chorus의 공연 Beethoven 제9번 합창교향곡에 큰 기대를 갖고있었는데 금년도 Ravinia Festival이 전체 취소되어 아쉽게 되었다. 관악 클럽은 관악 캠퍼스 세대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2월에 진행된 관악클럽 모임.

갖고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할 활동과 동아리 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첫 모임을 2월 29일에 나일스 소재 우리마을에서 동문 가족들 포함 총 19명이 모였다. 작년과 올해 모임 때마다 30대



/ 사진과 추억 /

뉴욕동창회 골든클럽 산행

지난 겨울 어느날, 일기예보 "Exceptionally cold weather for May arrives tonight with freezing temperatures and bitter wind chills"에 맞게 토요일 아침 산행 길은 늦은 눈으로 뒤덮인 눈송이 발을 걷는 기분이었다. 함께 눈 길을 걷는 젊은 후배들과 부담없이 어울리도록 노력하는 하루였다.

<기사=홍종만(공대 64)>

피부세포 이식 통한 파킨슨병 치료 성공

김광수 박사 세계최초 래거

<미생물학 77>

하버드 맥린 병원에 재직중인 김광수 동문이 세계 최초로 69세 파킨슨병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 뇌 이식을 통한 맞춤형 치료에 성공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은 14일 환자의 피부세포를 변형,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생성케 한 후 이를 69세의 파킨슨병 환자의 뇌 깊숙히 주입시켜 구두끈을 다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과 자전거를 탈 정도로 회복시켰다고 보도했다. 하버드 맥린병원 분자신경생물학 실험실 소장 김광수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환자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었다. 이를 다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로 만든 후 환자에게 이식해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없이 작용토록 하는데 성공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이하 iPS)는 야마나카 교수가 2006년 만드는 기술을 발표, 2012년 노벨 의학상을 안긴 연구였다. 그러나 지금껏 iPS를 사용해 파킨슨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며 또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김광수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들은 새로 생성한 신경세포를 환자의 뇌반구 양쪽에 6개



구진들이며 수술의 집도되는 MGH 병원의 제프리 슈바이처 교수 등이다. 이 연구는 수십년의 기초 연구가 임상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치료방법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는 황우석박사가 2000년대 초에 시도했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함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이다. 파킨슨 병은 세계에서 600만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만성형 뇌질환이며 중뇌 속 도파민의 사멸로 인해 근육의 떨림,

느린 움직임, 신체의 경직, 보행 및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김 교수는 "이제 단 한 명의 환자가 치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성과 효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필요하다"며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비록 우리의 연구가 아직 한계에 제한되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믿음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수(65)는 30년 전 코넬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를 시작하면서 도파민 신경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으며 20년전 하버드 의대로 옮기면서 줄기세포를 도파민 신경으로 만들고 이것으로 세포치료를 통하여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하여 지금껏 이어 온, 신경과학과 줄기세포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기사출처=보스톤 코리아>



2018년 뉴저지에서 열린 제35차 북미주 서울의대 학술대회

북미주 의대 동창회

시계탑 문집 6호 발간



북미주 의대 동창회 발간 '시계탑' 글을 한데 모은 시계탑 문집 6호가 출간되었다. '시계탑'은 1974년 첫 출간을 시작으로 45년간 서울의

대 출신 동문들의 글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내용을 한데 모아 5년에 한번씩 문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2014~2019년간 신문에 기고된 내용들이 담긴 '시계탑' 문집 6호가 새롭게 발간 된 것이다.

이대 동창회 이성길 회장은 발간사에서 "이렇게 글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뜻을 독자들에게 공감이가도록 표현하고 문학적으로는 유명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원문으로 읽을수 있는 동문들도 있다. 여러 동문을 깨서도 한글로 쓰인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모두 감탄하실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집에서는 여행기, 인생의 쓰고 단 체험기, 좌절, 기쁨 등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져 있다"며 이 책이 동문들께 하나의 소중한 책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은 축하사에서 이성길 회장 및 임원진과 서운석 편집장 외 필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은 일생동안 모두 명의의 편과 같은 높은 명성을 얻으신 줄로 안다. 이제는 보다 주위를 돌아보고 동창회도 참여하시어 사회의 갈등과 계층간의 불화를 치료하는 명의로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운석 시계탑 편집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손색없는 문집을 발행할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이 문집은 의학, 문학, 철학, 역사 미술, 음악,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동문들이 남기는 발자취이다. 독자들이 읽고 깊이 생각하면 그들의 삶을



필요롭게 하는 지혜를 여기서 발견할 것임을 확신한다"며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옛날 도장”

서량(의대 69)

안개 낀 새벽 잠결, 아들놈 대학 졸업장이 벽에 걸려 있는 빈방

모퉁이 책상 서랍속 달걀 모양으로 찍히는 내 도장이 부스스

눈을 뜬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섬뜩하게 진한 주홍빛 도장밥

찌꺼기가 뺨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철부지 청년이 마냥 웃고 있네

여드름 자국 높은 해상도 환히 보이는 어리석음, 네모 반듯한

목재의 공간에 마음 놓고 누워 뒹구는 자세다 이제 와서 하는 말

이지만 진정한 자아라는 건 정말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럴 의도가 추후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른 아침 안개

겉힌 펠리세이즈파크웨이 과속으로 달리는 출근길 아스팔트

바닥,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도장이 나나 내 아들의 얼추 가름한

얼굴 모습으로 줄줄이 찍힌다



곽상희 (문리 52)

/ 동문 문단 /

내일 우리는

“보름달”

겨울나무까지 얼키어서

보름달 줄금 굶고 있다

몇 부리는 화가처럼

서툰 외과의처럼

화가는 여기저기 아무렇게 복선을 긋고

초년생 외과의는 수술대에 누운

그의 멸절한 팔 다리를 자른다

그러나 너는 멸절하구나

칼날 같은 겨울나무 가지

저 보름달의 둥근 얼굴 굶지 못해

너의 몸은 피를 흘려도

더 가지런 꿈의 황야를 발굴하여

더욱 먼 은하수에 팔을 벌여

별들을 안아 드린다

새로운 신 광년을 발굴하여

아아, 황야를 달리는

너의 장신 굶고 힘찬 다리

보름달은 여전히 보름달이다!

희망의 구심은 그것이 아주 어두운 데서 생겨나는 그 무엇입니다, 존 버거, 그는 아직 못다 한 말에 취한 듯, 봄빛이 어른거리는 창밖에서 되돌아와 안을 기웃한다. 오랜 신문 스크랩에 그의 아득한 눈빛, 그의 시선은 하늘 너머로 응시하고 있다, 하늘 저 아득한 그 곳으로, 그의 눈빛이 물에 젖어 반짝인다. 은밀하다, 참되고 맑은 정신의 소유자, 그는 자라지 않는 영원히 성숙한 소년이다, 아슬한 듯 그 때 집을 떠나 고향처럼 살고있는 이곳, 푸르른 산 저 멀리 암전히 있던 집은 푸른 집착체가 되어 내 안에서 어머니의 물그런 살냄새를 풍긴다.

모난 것 뽀죽한 것은 몽실 몽실 자카란타 연분홍 꽃이 뽀얀 손바닥으로 닦아놓는다. 시를 쓰는 건 사랑을 하는 것이다. 아니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이 되는 건 상처를 사랑해야지, 누가 그런 말을 말했지? 허다한 말 가운데?

오늘은 저 빌딩 숲 너머 어슴프레 산맥을 넘어 우리의 무심하고 오만한 문명의 여딘가에 날아와 우리의 거리를 휘젓는 곱지 않는 (곱지 않다는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대한 이상한 나비를 본다.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아름다운 공기를 마음껏 숨 쉴 수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굳어진 흉을 파고 맑은 물을 뿌리고 씨앗을 심고 식목을 할 일이다. 봄은 기다리는 것인가, 그냥 기다리는 봄은 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다. 그 대신 그 나비는 우리에게 강요하는 듯, 그는 벼랑 끝 over-stepped 한 기존의 문명을 갈아치우고 잠시 정지하라고 강요한다. 대신 그가 준 공포와 불안을 대항하라한다.

인간 순수에 투항하여 투쟁하고 꿈꾸고 믿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편안하여 기다리는 것, 너와 나, 마음의 손을 잡고, 용서를 바라면서... 그런 것을 그는 우리에게 암시한다. 우리 모두 투쟁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이 후에 을 새로운 문명, 두 손으론 물리적으로 마음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대항하여, 그 순수 정신을, 시인들은 어둠에서 흰 복사꽃을, 튜립을, 차가운 겨울에서 봄꽃을, 시인들의 정신은 발길을 멈추고 생각을 한다. 가슴도 달라지고 있다, 더 성실하고 겸손하여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 이것은 분명 코로나의 선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속지 말자, 누가 말했던가, 4월은 잔인하다고, 그는 그 말로 세기의 갈채를 받고 그래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세기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는 시다, 변하지 않는 인간 사랑이다. 시인은 변치 않는 그 사랑...창조의 변치 않는 율법, 그 사랑의 율법을 찾아가는 순례자임으로,

*곽상희 시인: 올림포에트리 시인과 계관시인 (UPLI) 영국 백과사전 등재



/ 미국시인 소개 /

Peter Thabit Jones

피터 테빗 존스

Peter Thabit Jones is the author of fourteen books, including poetry, short stories, and plays. Among them, *The Lizard Catchers* was nominated for the 2007 Welsh Book of the Year award, and *The Newspaper Birds*, a bilingual Romanian/English collection. His work has appeared in books from publishers such as Penguin, Simon and Schuster, Oxford University Press and Titul Publishers/British Council (Russia). His poetry has been featured on British TV and educational publications. The recipient of several awards, Mr. Thabit Jones is a lecturer of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Wales, Swansea. He is the founder and editor of *The Seventh Quarry*, a poetry magazine wit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The Seventh Quarry Press*, both based in Swansea, Wales.

SONG, BIG SUR

O little heart,

O little child,

The blessings of your smiles,

Of your long- ago eyes.

How you shine

In the desert of my thoughts,

My little son,

My little boy.

Feel of your baby hand,

To soothe the wound

Of the burn in my mind.

O little life,

O little prince

In the kingdom of love,

In the palace of time,

Today as I walked

The ocean's edge,

The whole world announced

You're still alive.

박서희의 노래

오 어린 마음아,

오 어린 아이야,

네 미소 속에,

그 옛날 눈길 속에 깃들었던 축복.

내 생각의 사막에서

너는 빛나고 있네,

내 어린 아들이,

내 어린 소년아.

밤에 홀로 깨어나,

너의 어린 손

영원히 쓰다듬기 위해

내 손 내밀었네,

내 마음 속 깊은 상처

달래기 위해

오 어린 생명아,

사랑의 왕궁에,

세월의 궁전에 있는

오 어린 왕자야,

오늘 대양의 가장자리

내가 걸을 때

전 세계가 공포했는지

너는 아직 살아 있다고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THE BIRD OF GRIEF

after a painting by Carolyn Mary Kleefeld

This is the bird of grief

Attended by her ghosts;

Her long black wing outstretched

Like a psalm of sorrow.

This is the room's last shadow,

The mother-feathered pain;

This is the touch of nursing souls

Before the flight of change.

All the hurt of man

Is weeping from her eye,

All the war of loving

Is breaking in her night.

This is the bird of grief

That shrieks inside the blood,

Whose silence is the sound of death,

Whose talons are for love.

애도의 새

캐롤린 메리 클리펠드의 그림을 보고...

이것은 애도의 새

그의 귀신들이 시중을 들고 있네;

길고 검은 날개는

슬픔의 시편처럼 젖혀진 채.

인간의 모든 아픔이

그의 눈에서 눈물로 흐르고,

모든 사랑의 전쟁이

그의 밤에 일어난다.

이 것이 방의 마지막 그림자

어머니-깃털을 한 고통;

이 것이 간호하는 영혼의 손길

변화의 비행을 하기 전에.

이것은 애도의 새

피 속에서 울부짖네,

그의 침묵은 죽음의 소리,

그의 발톱은 사랑을 위한 것

ON POEMS FROM A CABIN ON BIG S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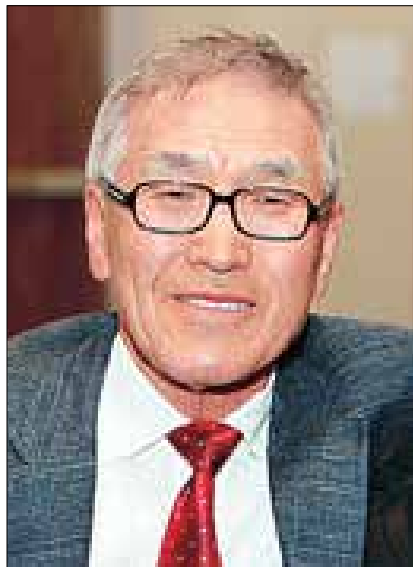
I love the poems' clarity of vision, this genuflecting before a life-affirming experience, part of the webwork of a world, so much in its purity, like that of the very dawn of Creation. The poems vary, both in length and in prosody, yet always with Peter's dual vision and sensibility: 'The man on Big Sur [observing] with the eyes of maturity, but [feeling] with the open heart of the boy on Kilvey.

— Vince Clemente, teacher, poet, critic

I first met **Peter Thabit Jones** as a result of Vince Clemente suggesting that Peter be in touch with me. Subsequently, Peter invited me to be the first featured poet at the Dylan Thomas Centre in Swansea, Wales. Well, since, whenever I felt incapable of writing, I would read Dylan Thomas and could then again do so, this invitation made me feel that I'd died and gone to poet's heaven. This began a long a fruitful friendship. Peter, in addition to being a fine teacher and poet, became an award-winning editor of an international magazine, *The Seventh Quarry*. Our creative friendship continues.

—Stanley H. Barkan, Poet-Publish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심장병 살린 ‘40년 인술’ 빛을 받하다



/ 사람, 사람들 /

이홍표 박사 (의대 58/ 전 심장내과 전문의)

Dr. 이홍표 박사는 1976년부터 Harbor City의 카이저병원 심장내과 Chief,로 32년간 재직한 명망 높은 심장내과 전문의로, 은퇴 후에도 심장의학계에 영향을 주는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의대 재학시절부터 무의촌 봉사와 의사가 된 후 지난 50년간 사모아, 아프리카 등지로 몇 달씩 무료 의료 활동을 해온 봉사자로도 유명하다. 돈이 많다고 다 기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많음을 가슴속 깊이 느꼈을 때 아름다운 전당 서울대 후학도들에게 보답이 된다면 그 기부의 의미는 값지다. 영원히 남는 주고받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마움으로 서로 릴레이로 인해 서울대는 발전하며 이어진다.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많은 일을 해오고 이젠 퇴임 후 여가를 즐기는 이홍표 박사의 삶과 희망에 대해 알아본다.

- 미국에 오신 계기와 약력은

1960년대의 한국의 의술만을 의존하는 것보다 외국에서의 유학을 하고 싶었고, 때마침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Medicare를 처음 실시하면서 의사부족 상태에서 문호가 개방되어, 해군 군의관 복무 후 지원하였다. 그 때 동기생 중 80 여명이 오는 계기가 되었다. 1958년 경기 54회 졸업, 1958년 서울의대 입학, 1960-1964 Medical School, 1966년 Detroit Harper Hospital Intern, 1970년까지 Royal Oak의 William Beaumont Hospital Residency, Detroit Henry Ford Hospital 1972년 Cardiology Fellowship를 거쳐 노후 건강상 날씨가 따뜻한 LA로 이주했다. 1976년부터 Harbor City의 Kaiser Medical Center, Chief로 2004년 은퇴했다.

- 효자의 마음으로 의학을 택하신 것으로 아는데...

공학을 좋아 했지만 모친이 심장이 안 좋아 꼭 고쳐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의학을 택했다.

- 의사로서 보람된 일과 어려웠던 일과 또 어떤 신조로 이겨냈나

의대 본과 3학년 남해 무의촌 진료 활동 때 심장질환이 심한 아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노인에게 교수와 학생들이 모금하여 서울의 큰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후가 참 안타까웠고, 남태평양 지역의 동동한 원주민들이 많아 고혈압, 심장병이 많은데 신장 5피트에 체중이 300파운드 되는 추장이 심장 박동이 30회 정도로 방치하면 목숨이 위태로워 막 시술도중 X-ray 고장으로 급히 임시 Pace Maker를 부착하고 하와이로 비행기 우송하여 진료 했을 때와 1981년 Samoa Island에 가서 4개월간 의료 봉사 활동한 것이 보람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LA에서 시술한 환자 수가 Pace-Maker 2,000여 건과 심장도관(Coronary Angiogram)

3,000여건으로 저로 인해 생명 연장이나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있으신 것을 가장 큰 보람이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조라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는 Somoa말로 Aita Pea Pea(No Problem) 아프리카 킬리

를 지난 1992년 심장내과 전문의 현역시절 직접 개발해 특허를 낸 다음 'H-Lee Safe Sheath'라는 자신의 이름을 따 상표를 특허 받아 등록해 생산하고 설립한 회사다. 그 의료기기 발명과 개발전문으로 대표적

심장박동 시술 시스템 ‘H-Lee Safe Sheath’ 발명

서울대 의대 30만달러 기부 순환기 내과 기금 설치

봉사,여행 등 은퇴후 삶 만끽... 우주의 신비에도 관심



95년 의사최고의 Exceptional Physician Award를 수상후.

만자로 여행시 Hakuna Matata 란 단어가 생각난다. 두 단어 역시 낙심 말고 최선을 다하자 라는 뜻인데 나의 신조가 되었다.

- Q HLMI(H-Lee Med Invention) Inc. 란 Split table Hemostatic Valve and Sheath

인 제품이 심장 내에 pace-maker또는 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를 시술 시 사용되는 H-Lee Safe Sheath 이다. 미국 내에 약 1년에 30만 명이 넘을 정도가 시술이 필요하며, 외과전문의와 심장내과전문의가 함께해온 시술을 심장

내과 전문의 단독으로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본인이 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다.

- 모교에 3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된 동기는

좋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그로인해 받은 혜택을 후학들에게 전해주고 모교와 나라의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며 하는 마음에서였다.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순환기내과 연구 및 교육기금이 설치되었다.

- 어디서 강의 했으며, 여러 감사패에 대한 소개와 시상을 받은 소감은 어떠했는지

1976-1995년 Harbor-UCLA Medical Center 의 attending Physician으로 강의 했고, "H-Lee Safe Sheath시술을 연 세대의대 심장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동기생의 초청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강의와 시술을 직접 지도했다. 이 시술 개발로 1995년 Kaiser Medical Center의 300여 명의 Medical Doctor추천으로 선정되어 의사최고의 Exceptional Physician Award 상을 받았는데 참으로 뜻 깊은 상이었다. 그 밖의 서울대학 (모교의 발전을 위해) / Palos Verdes Peninsula Land conservancy (모든 시민을 위한 넓직한 open space 인 Portuguese land nature reserve 공원 조성을 위해) / LA Biomedical Research Institution(첨단 의학연구를 위해) / LA Griffith Observatory(전시물, 교육적인 천문 영화 제작을 위해) / Rotary International(가장 비영리적인 국제 자선) / LA County Museum of Art, Palos Verdes Library, 한미 박물관, 등등의 시상을 받았다. 많은 어려움 끝에 받은 상이라 일생에 못 잊을 순간들로 간직한다.

- 은퇴 후에 자랑스럽게 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앞으로 미래의 희망은



아내와 함께한 알래스카 여행.

미래의 희망이라면 건강하게 지날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바깥엔 진료 병원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30년 이상 있던곳, 동료와 직원들을 그리워 하곤 한다.

- 의사로써 일만 하는줄 알았는데 여러 취미와 여가활동을 많이 하셨다

나 자신 의사 활동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기에 Kaiser 병원 내에 테니스 동호회를 만들었으며 부인과 함께 여러차례 시합도 나가 우승도 한 적이 있고, 2005년에 프랑스 Open, 2007년 윈스턴 대회를 현지에 가서 관람할 정도로 애호했다. 테니스는 부부가 같이 팀으로 enjoy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은퇴하기 전까지 많이 즐겼다. 50세 이후에는 Golf로, 2001년, Robinson Ranch(Mountain Course)에서 개최한 22nd SOGA Four-Ball Net Championship에서 임영빈씨와 함께 우승을 한 것과 240팀이 출전한 California Qualified를 통과한 240개 팀이 출전한 당시 Net Eagle로 성공해서 이긴 순간이 좋은 기억에 남는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같이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골

프를 국내외를 친구 부부들과 기회 있을때마다 다니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비교적 실수를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집사람이 저보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부부 대항전에서 여러번 우승 하곤 했다. 또 우주의 신비로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것도 가치를 느끼며 재미있게 공부하며 즐기고 있다. 저는 하늘의 별을 보는데 흥미가 있어 별이 잘 보이는 곳을 찾아 다니고 갈때마다 친구들에게 간단한 별강좌를 주곤 한다. 바둑도 수준급이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자제 하지만 가끔은 즐기고 있다. 여행도 건강할 때 부지런히 다닐 생각이며 지금까지 전 세계 6개 대륙 50 여군데 이상을 다녀 보았다. 많은 것을 느끼며 배우며 즐기고 있으며, 가장 인상에 남는곳은 Griffith Observatory팀을 따라서 아내와 같이 일식 관찰 하러 갔던 Moai 가 출지어 있는 Easter Island, 그리고 아들과 같이 갔던 Tibet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서울대 미주동창회 본국 Home Coming Day 행사 일환으로 서울의 5대 산을 서울대 동문들(조동준 박사, 백옥자 국장 외)과 함께 여행한 기억이 추억으로 오래 남는



태양계에 관심을 가지며 별을 관찰하며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다. 은퇴 후 앞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여행으로 계속 하려고 한다.

- 아내와의 만남과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와 미웠을 때는 언제인지. 또한 가족소개를 해준다면

모친 친구 소개로 도미 하기 두 달 전에 만나 데이트하다 결혼하고 저는 먼저 도미하고 처는 6개월 후에 미국으로 왔다.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던 때는 40여 년 전 sailing을 나갔다가 바람 때문에 1-2시간 늦게 돌아 왔을 때 2살쟁이 간난애를 등에 업고 울먹거리며 부두가에서 나를 찾고 있던 모습이었고 미웠을 때는 정말 어렵게 만든

골프 만남을 큰 이유도 없이 안 간다고 했을 때다.

아내는 숙명여고와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나와 딸은 UCLA 졸업 후 결혼하여 두 딸이 있고, 아들은 Harvard 대학 졸업 후 UCLA 의대를 나와 뉴욕 프르크린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 서울대 후배들에게 덕담 한 말씀해 준다면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사회와 자신을 도울 수 있다면 집념을 두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생이라고 느껴진다.

<글: 조직국장 백옥자>



가족들과 함께한 이 박사(맨 오른쪽)



서울의대 30만달러 장학기금 전달식



김종원(문리 69)

/ 세계 들여다보기 /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

2020년은 1919년과 마찬가지로 두자리 수가 두번 반복되는 해이다. 백년 전 1919년에도 소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고 있었는데, 2020년 올해에도 공교롭게도 Coronavirus로 인한 pandemic이 전세계를 엄습하고 있으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혹은 유포되고 있는 음모설이 사실인지 VIRUS는 말이 없다. (Fog of Pandemic). 특히 금년 2020년은 WW2의 종전 75 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사적 격돌로 이어진, 6.25 발발 70 주년이 되는해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에는 4월의 중국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5월의 러시아 최대 국경일인 승전 75주년 경축 Parade, 7월의 세계최대 체육행사인 동경 Olympics, 그리고 11월의 미국 최대 정치행사인 대선같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던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두 코로나의 여파로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트럼프의 재선 여부만 숙제로 남아 있다. 이 4대 강국의 세력이 교차하는 한국에서의 4.15 총선도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던 행사였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범지구적 선전전과 어마어마한 정보전(Titanic Information War)이 묵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치 21세기의 주도권의 항배가 여기에 달렸다는 듯이, 건곤일척의 신냉전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oronavirus의 돌발을 두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서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6.25 때 한차례 세기적 일한이 겨루어진 이후, 70년 만에, 바야흐로 두 거인들의 숙명적 showdown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마치 서전을 알리는 포연처럼 나타난 이 코로나는 4대 강국,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동시에 경고로 보내진 일석 사조의 “신의 한 수” 인가? 아니면 이것은 절묘한 타이밍을 노리고, 숨은 의도를 관철시켜보려는 어떤 인간적 음모의 소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단순한 우연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여기 미중 당사국이 아닌 제3국 매체 SPIEGEL의 관련 기사를 소개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정세 판단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하는 SPIEGEL 독어 기사전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어디에서 Coronavirus가 동물에서 사람에

게 최초로 전이 되었는지가 지금까지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 매체들이 무한의 연구소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보도들을 내놓고는 있으나, 거기에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Coronavirus는 유래했던 말인가? <Karl-Josef Hildenbrand/ DPA>

전세계가 하나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Coronavirus가 어디에서 출현했는가? 이 Virus가 돌발한지 녀달이나 지났건만, 그에 대한 하등의 답도 주어진 건 없다. 중국당국이 처음에 그 역병을 은폐한 탓도 적지는 않다. 소문이 난 무한의 우한 수산물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 역병의 최초 진원지로 여

Covid 19, 한국전 이후 70년만에 중·미 전쟁 불붙어

우한 연구소 발원, 생화학 무기설 등 ‘음모론’ 확산

트럼프 “중국 바이러스”발원에 양국관계 악화일로

겨진다. 요즘 미국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장소들도 발발지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수산물 시장과 관련하여, 도대체 그곳에서 병원체가 동물에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옮겨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왜냐면: 소위 “최초 0 번의 환자 Patient Zero”가 전과 다름없이 지금도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 연구원들은 1월에 “Lancet”이라는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논문에서 Sars-Cov-2에 감염된 처음의 41명의 환자들 중 14명은 그 시장과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흔히 보도되는 바와 달리, 어떤 박쥐도 식용으로 현지 시장에서 판매된 적도 없다고 한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박쥐가 Coronavirus의 시발적 숙주 동물이라고 어느 정도 자신있게 지목한 바는 있으나, 동시에 그 병원균이 차후에 아르마딜로에 옮겨진 다음, 마침내 사람에게 전염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시장이 아니라라도, 무한에 박쥐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장소가 적어도 다른 두 곳이 더 있긴 했다.

WV(무한 Virus 연구소)에서 실험 동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소는 시 중심에서 외곽에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고, 2015년에 중국 연구소로서는 최초로 최고의 보안 수준인 BSL-4의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WHCDC(무한 전염병통제예방 센터)에도 있는데, 여기는 보안수준이 보다 낮은 BSL-2를 유지하고 있으며, Huanan 시장에서 겨우 수백 미터 떨어져 있다.

Sars-Cov-2를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WV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로 인위적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internet 상에 유포되고 있는 음모설은, 국제적 과학자들이 병원균의 유전자 코드를 분석해 보고 나서, 논외로 간주하고 있다. 또 미 정보계와 인맥이 잘 닿아 있는 Washingto Post 기자 Da-

는 Columnist인 Josh Rogin의 한 기고문이 최근에 주목을 끈 바 있다. 2018년에 주중 미대사관의 직원들이 Washington으로 보냈다는 외교전문들을 그가 열람할 기회가 있었다 한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수차례 WV를 방문해서, 거기서 Shi Zheng과도 면담했었는데, 그녀는 “박쥐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Coronavirus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 중 한 명이었다.

그 외교전문문에서, 미국 외교관들은 “SARS와 유사한 Coronavirus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식견을 중국 연구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WV에는 고도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마치 우려하고 있는 듯 보였다. Rogin에 의하면 그들은 미 정부를 움직여서, 중국에 기술 지원을 하려 했지만, 그 지원은 희망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WV의 진원설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Huanan 시장으로부터 12 킬로미터나 떨어져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도대체 그 먼 곳에서 최초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Ignatius와 Rogin 양자의 기고문은 뉴스보도도 아니고, 개인 Opinion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다. 설령 무한의 연구소들에서 실시하는 박쥐 연구가 Covid-19의 돌발과 무슨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있을 법하게 보인다 해도, 확고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서, 그저 지금까지는 하나의 막연한 가설에 불과하다. 또한 전반적 정치 정세에 비추어 봐서라도 그러한 보도들을 일단 조심해서 접해야 할 이유들이 다소 존재한다.

마침내 Washington과 북경 간에 선전전이 근자에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Donald Trump 미대통령이 자꾸 반복해서 “무한 바이러스” 혹은 “중국 바이러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역병퇴치 과정에서 범한 자신의 실정에서 주의를 다른데로 돌려 보려는 저의의 발로일 수 있다. 그것이 북경을 격노케 만들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Zhao Lijian은 반격에 나서면서, 그 일환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하나의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그 음모론에 의하면, 미군들이 2019년 10월 무한에서 개최된 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러 왔을 때, Virus를 무한으로 유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즉, 향후 미중관계가 전례에서 보기 드물게 험난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출처: SPIEGEL >

<진화회에 이어>

2. 면역억제제 종류: 우리몸에서 면역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너무약하면 감염증에 잘 걸리고 너무 심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된다. COVID-19에 걸리면 대개의 감염증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독성으로 인해 감염된 세포가 죽어서 일어나는 증상과 이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몸의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는데 면역체계가 일으키는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한것이 심한 염증현상이다. 그런데 이 염증증세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몸에 상당히 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도 할수 있다. 몸에서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들을 총칭하여 CYTOKINE이라하여 수백가지가 있는데 Interleukines (ILs), tumor necrosis factor(TNF) 등이 그러한 물질의 예라 할수 있다. 이러한 물질이 일시에 과도하게 분비되어 CYTOKINE RELEASE SYNDROME 또는 CYTOKINE STORM이라는 현상이 오고 CYTOKINE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이 감당할수가 없게되어 많은 몸의 기관들이 이로 인해 기능이 정지되거나 파괴되기도 한다. 우리 몸에 세균이 피에 감염되어 생기는 패혈증(sepsis)도 그중에 하나인데 패혈증이되면 세균에 의한 독소가 처음에는 몸을 해치지만 나중에 이를 방어하기위한 몸의 면역과잉반응이 결국 몸을 해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COVID-19에도 중증인 경우 이러한 경우일 가능성이 많다.

1918년에 창궐했던 Spanish Flu에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노인들보다 많이 사망했는데 그경우 과도한 면역반응의 일종인 CYTOKINE STORM으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Covid-19감염에도 소수의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폐세포나 혈관이 leaking하여 심하게 물이 차고 산소교환이 안되는 ARDS가 생기는데 이럴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반응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약물들을 임상에서 사용하게 된다.

1) 항말라리아 약물들: Trump대통령이 초기에 치료제로서 소개하여 널리 알려진 Chloroquine 또는 Hydroxychloroquine이 이에 속하는데 원래 이약물들은 말라리아의 예방과 치료에 쓰이는 약물인데 이 물질을 면역이 과도하게 자기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마치스성 관절염에 면역억제제로 쓰이기도 한다. 이 약물은 Covid-19이 세포 표면에 붙어서 들어가는(endocytosis) 것을 차단해 주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pH에 따른 바이러스의 침식을 막아주어 약물들이 면역을 조절하고 항바이러스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다른약물과 같이보조제로 쓰이고 있는데 이 약물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밖에 말할수 없다.

2) 다른 면역 억제제들: 같은 맥락으로 여러 면역조절제들이 임상실험에 들어갔는데 이에 속하는 약물들tocilizumab (Actemra, Roche제약사), salilumab (Kevzara, Sanofi제약사)등이 있다. Tocilizumab은 원래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로 Interleukin-6(IL-6) 수용체 차단제를 차단하는것이며 ARDS가 생기는데 이럴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반응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약물들을 임상에서 사용하게 된다.

3. 회복된 환자의 혈청제제 (Convalescent Plasma): 이제제는 이미 Covid-19에 걸렸다가 회복된 환자로 부터 수거한 혈청을 정제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것으로 이 혈청은 회복된 환자가 이미 항체가 새겼을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이미 100년전부터 디푸테리아 항체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새로운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항체요법은 SARS나 MERS 때도 사용해서 일부 효과를 본적이 있는데 의료인들이 환자접촉으로인한 감염이 우려

는 ARDS가 생기는데 이럴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반응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약물들을 임상에서 사용하게 된다.

4. Covid-19감염과 다른 약물요법의 상호작용 1) Ibuprofen 같은 항염소염제 사용: Ibuprofen (Advil, Aleve, Motrin, etc)과 같은 소염진통제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폐 손상이 온다고 보고된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론적으로 염증을 같이앓하는 경우 감염이 중해 질수도 있고 약해 질수도 있다. WHO에서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고 FDA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인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이러한 소염제를 사용하기보다는 acetaminophen (Tylenol)같은 제제를 쓰는것이 좋을것 같다.

2) ACEI or ARB같은 고혈압치료제 사용: COVID-19 이 폐세포 표면에 있는 ACE2호소를 이용하여 세포안으로 들어 가는(endocytosis)것으로 인해 흔히 사용하는 고혈압치료제인ACEI (lisinopril, benazepril, etc) 또는 ARB (losartan, valsartan, etc)가 ACE2 효소를 많이 생기게 하니까 해롭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 약복용을 중단해야 하지 않는가 질문하는사람들이 많은데 COVID-19과 이 약물들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다.

II. Covid-19 백신 개발 현황 COVID-19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예전과 같이 생활하려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다. 79개 제약회사에서 백신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하고 있는데 WHO는 현재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백신들이 실용화 되려면 최소한 18개월은 걸릴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115개 후보물질들이 현재 제 1상 또는 제 2상 임상실험중인 가장 유망한 백신후보물질은 Moderna Co, Inovio Co, University of Queensland가 진행하고 있는 백신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COVID- 19이 정복되기를 학수고대한다.

/ 전문 칼럼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②



민일기 (약대 69)

는 ARDS가 생기는데 이럴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반응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약물들을 임상에서 사용하게 된다.

1) 항말라리아 약물들: Trump대통령이 초기에 치료제로서 소개하여 널리 알려진 Chloroquine 또는 Hydroxychloroquine이 이에 속하는데 원래 이약물들은 말라리아의 예방과 치료에 쓰이는 약물인데 이 물질을 면역이 과도하게 자기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마치스성 관절염에 면역억제제로 쓰이기도 한다. 이 약물은 Covid-19이 세포 표면에 붙어서 들어가는(endocytosis) 것을 차단해 주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pH에 따른 바이러스의 침식을 막아주어 약물들이 면역을 조절하고 항바이러스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다른약물과 같이보조제로 쓰이고 있는데 이 약물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밖에 말할수 없다.

2) 다른 면역 억제제들: 같은 맥락으로 여러 면역조절제들이 임상실험에 들어갔는데 이에 속하는 약물들tocilizumab (Actemra, Roche제약사), salilumab (Kevzara, Sanofi제약사)등이 있다. Tocilizumab은 원래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로 Interleukin-6(IL-6) 수용체 차단제를 차단하는것이

는 ARDS가 생기는데 이럴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반응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약물들을 임상에서 사용하게 된다.



권오을 (상대 56)

/ 삶과 생각 /

재앙에 적응하는 우리의 지혜

적응하고 생존하면서 진화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응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서로 격리되어 있어 대면을 못하게 되니 발코니나 창문이 대화나 의사전달의 매체가 되었다. 여러 큰 건물 밑 공간에서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운동, 요가 및 댄스 코치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여러 창문에서 연주자들이 따로 따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모아 하나의 콘서트연주로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건물 안의 사람들은 발코니에 나오거나 창문을 열고 손뼉을 치고 냄비, 정반 등을 뿔과 리를 치듯 두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최일선에서 자신들의 위험

될때나 치료에 사용될수 있다. 다만 회복한 많은 환자로 부터 혈청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

4. Covid-19감염과 다른 약물요법의 상호작용 1) Ibuprofen 같은 항염소염제 사용: Ibuprofen (Advil, Aleve, Motrin, etc)과 같은 소염진통제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폐 손상이 온다고 보고된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론적으로 염증을 같이앓하는 경우 감염이 중해 질수도 있고 약해 질수도 있다. WHO에서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고 FDA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인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이러한 소염제를 사용하기보다는 acetaminophen (Tylenol)같은 제제를 쓰는것이 좋을것 같다.

2) ACEI or ARB같은 고혈압치료제 사용: COVID-19 이 폐세포 표면에 있는 ACE2호소를 이용하여 세포안으로 들어 가는(endocytosis)것으로 인해 흔히 사용하는 고혈압치료제인ACEI (lisinopril, benazepril, etc) 또는 ARB (losartan, valsartan, etc)가 ACE2 효소를 많이 생기게 하니까 해롭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 약복용을 중단해야 하지 않는가 질문하는사람들이 많은데 COVID-19과 이 약물들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다.

II. Covid-19 백신 개발 현황 COVID-19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예전과 같이 생활하려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다. 79개 제약회사에서 백신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하고 있는데 WHO는 현재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백신들이 실용화 되려면 최소한 18개월은 걸릴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115개 후보물질들이 현재 제 1상 또는 제 2상 임상실험중인 가장 유망한 백신후보물질은 Moderna Co, Inovio Co, University of Queensland가 진행하고 있는 백신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COVID- 19이 정복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우를 무릅쓰고 봉사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표시도 발코니와 창문을 통해 표시하고 있다. 위험하고 격리되어 있을 때 이렇게 상호의 마음과 기분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하여 최선책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재앙에 적응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지향해 간다. 우리집에 손님이 온 지도 한참 되었다. 이웃에 사는 아들딸 가족들도 서로 조심하면서 자기자리를 하고 있으니 얼굴을 못 보고 지낸 지도 오래 되었다. 비록 전화, 이메일, 텍스트, 영상통화를 매일 하고 있지만, 서로 얼굴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우리 가족들도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아들 딸 가족이 따로따로 내가 사는 건물의 창문 밑으로 오고, 나는 4층 발코니에 나가서 덕담과 정담을 나누고, 머리 위에 두 팔로 하트를 크게 그리며 웃는다. 올라오지도 내려갈 수도 없어 안타까움이 크지만 이렇게 라도 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 즐겁고 다행스럽다. 이 코로나 재앙 속을 헤쳐 나가는데 또 어떤 기발한 착상들이 나와 우리들의 관계를 유지 개선하고 고독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정평희 (공대 71)

/ 투병기/

코로나19 투병·극복 ‘생생 증언’

정평희 동문이 지난달에 말로만 들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것이다. 그는 긴 투병 끝에 회복되었다. 그는 이 수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세가 어떠한지,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가 격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위기의 시간을 극복했는지를 생생히 소개했다. 워싱턴 동창회장이기도 한 정 동문은 자신의 경험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많은 동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기고했다고 밝혔다. 그의 투병기를 소개한다.

고열로 응급진료소에서 테스트 받아
제가 코로나19에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건강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걸리더라도 간단히 넘어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경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연락해보니 한 며칠만 더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계속 열이 나고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테스트를 받으러 응급 진료소(Urgent Care)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독감 테스트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곳의 의사가 “몸에 열이 얼마나 올라갔었냐?”고 물어서 10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금방 코로나19 테스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쉼을 앓았습니다.

타이레놀, 비타민, 감기약만 먹어
테스트를 받은 지 일주일 후에 제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스트 받고 하루나 이틀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일주일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아플 동안에는 밤에 잘 때마다 몸에 열이 나서 몇 번이나 땀으로 범벅이 되어 깨곤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먹었던 약은 타이레놀과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감기약 뿐이었습니다. 그 동안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입맛이 사라지고 뱃속이 울렁거리고 온 몸이 녹신 녹신 쭉서서 음식은 하나도 못 먹고 국하고 주스만 간신히 먹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죽도 목구멍에서 걸려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비타민도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18파운드까지 빠졌습니다.

갑작스런 고열, 일주일만에 확진

입맛이 사라지고 뱃속이 ‘울렁’

음식 입에도 못대고 종일 ‘공공’

그 사이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응급실에도 한번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 검사도 하였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몸이 너무 약해졌다고 하니가 IV를 놓아주고는 집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플 때는 “주는 나의 치료자”라는 찬송만 계속 듣고 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주 지나자 조금 회복

3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간의 죽과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4주가 지난 다음에는 입맛이 돌기 시작하여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평소 먹는 것의 반 밖에 먹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음식을 제대로 먹으니 몸무게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친구들

과 같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식도 갖다 주고 비타민도 주며 꽃도 보내 주고 전화로도 격려해주었고 또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헌신적으로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같은 집에 있지만 방은 따로 썼지요. 다행인 것은 제 아내는 코로나19 테스트를 선별 진료소(drive through)에서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Urgent Care에 연락을 했

이 없고 기침도 안하고 호흡도 괜찮으면 다 나은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았다는 확인서를 써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테스트 기록이 없는데 그런 편지를 누가 믿겠느냐?”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씩- 웃더군요. 물론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미국이 테스트 키트가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병이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가라고 하니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격려가 큰 힘이 돼

5주차에 들어서면서 입맛도 제대로 돌아오고 기력이 많이 회복되고 또 몸무게도 어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복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독감에 걸렸을 때는 땀 좀 몇 번 흘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며칠 만에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회복하는 데만 2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호흡기에는 큰 장애가 없었던 것을 보면 심한 코로나19에 걸리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호흡만 못 할 정도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아파보니가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중에서 혹시 주위에 코로나19로 아픈 분이 계시면 음식이나 약이나 또 문자 등으로 위로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그 분들이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화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듣기가 힘들어서 휴대폰을 아플 동안에는 늘 꺼놓았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면 이 힘든 시간도 무사히 견디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전용사 조각

/ 역사와 예술/

조각가의 눈으로 본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관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김현정 (조소 94)

검은 화강암 벽의 좌측상단에는 ‘자유는 대가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새겨져 있다. 여름을 앞두고 초록이 짙어지기 시작한 때 방문한 워싱턴 디시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는 간단한 이 글귀만이 새겨진 검은 벽이 있었다. 이 벽은 동그런 기억의 연못(Pool of Remembrance)을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그 연못에는 오리 한쌍이 마치 서정시처럼 떠 있었다.



요즘처럼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관계가 민감한 이때 특별히 6.25 전쟁이 발발하였던 6월을 앞두고 수많은 기념관들이 가득한 워싱턴 디시에서 1995년 완공된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

평온한 마음으로 다가가 기념관의 기억의 연못의 연못가에는 전쟁 중 사망, 부상, 실종, 포로 병사들의 명수라는 더는 평온하지 못한 사실이 돌판에 새겨져 있다. 마치 구굴 지도의 목표 지점을 보듯 기념관은 원과 삼각 꼭지의 만남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긴 삼각형의 구도를 가진 19명의 참전 용사들은 그 원의 한가운데 있는 성조기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기억의 연못은 목표지점의 메아리와 같은 모습으로 위치해 있다.

19명의 참전용사는 67개국의 가장 많은 참전 지원국의 기네스 기록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듯 다양한 인종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가까이 다가 갔을 때는 실제인물보다 약간 큰 7피트(약 2미터) 정도의 사이즈로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이 들게 제작되어 있었다. 육해공군으로 각종 병기를 들은 군인들은 모두 우비를 입고 있는데 이는 한국전 중 가장 힘들

었던 것이 혹한과 비바람이었다는 참전 용사들의 회고를 담았다. 이들은 일정한 횡대를 지으며 목표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 대열은 바닥에 석판과 키 작은 향나무로 구분되어 있어 마치 한국의 나지막한 산과 들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논과 용수로를 표현했다고 한다.

이때쯤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병사들이 향하고 있는 성조기의 기점 가까이 바닥에 새겨진 문구.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선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을 기린다. (OUR NATION HONORS/HER SONS AND DAUGHTERS/WHO ANSWERED THE CALL/TO DEFEND A COUNTRY/THEY NEVER KNEW/AND A PEOPLE/THEY NEVER MET/1950,KOREA 1953)’라는 짧은 글로 요약된 이 기념관의 의미, 읽는 순간 가슴이 짝 조여온다.

병사들의 얼굴들은 진지하고 어찌면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차 있는 듯 하다. 생전 들어 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는 한 나라에서 완전 무장을 한 채 비오는 산과 들을 걷고 있을 그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음악으로 표현된 눈들에서는 깊고 어두운 그들의 마음을



▲기억의 연못
▶화강암벽 이미지

보는 듯하고 소조작업의 흔적으로 헤라자국 굽혀진 표면은 마치 숲속을 헤치며 굽힌 흔적을 보는 듯하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주조되어 제작된 이 인물들은 작년 작고한 미국의 조각가 프랭크 게이로드(Frank Gaylord, 1925-2018)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그는 세계2차대전 참전자로 전사의 군인들의 모습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

이 참전용사 동상을 옆에는 잘 연마된 검정 화강석의 164피트(약 50미터)나 되는 긴 벽이 있는데 그 표면에는 저부조로 모래연마(Sand blasting)된 이미지들이 새겨져 있다. 이벽은 루이 넬슨(Louis Nelson, 1936-)에 의해 제작되었고 2500장 이상의 6.25전쟁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인상적인 것은 연마된 검정 화강석에는 이렇게 새겨진 아련하게 보이는 전쟁의 모습을 뿐만이 아니라 우비를



입고 산과 들을 헤매고 있는 참전용사19명의 모습이 함께 비쳐 있다. 또한 그 안에는 기념관을 참관하러 온 우리 방문자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이미지처럼 반영되어 함께 있다. 이는 전쟁 발발 70주년이 2020년 지금, 종전이 아닌 휴전67년의 진행중인 우리의 역사를 마치 이 기념비에서 보는 듯 하다.



Canada Vancouver Island Victoria 근처에 있는 Butchart Gardens <SS 1/125 sec, 조리개 F/5.6, ISO 100, Focal Length 35mm>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봄을 좋아하는
다. 왜 그럴까?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이란 식물로써 가장 귀
중한 자랑스러운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
은 그들의 존재 그자체와 관련이 있다. 꽃은
사시사철 볼 수 있지만 봄에 피는 꽃은 더 화
려하고 산뜻한 느낌이 든다.

꽃마다 특성이 있는 것은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꽃을 좋아하는 것이 봄을 좋아하는 이
유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시인은 봄에 피는 꽃을 일년내내 기다리

/ 삶과에세이 /

봄이오면

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무에 싹도난다. 이
파리가 나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나무 전체
를 초록색으로 물들인다. 이것을 가만히 들
여다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을 느낀다. 눈의 피곤함도 없애 준다.
이 세상의 많은 말중에 봄이란 단어 만큼 평
범하면서도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많지 않
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봄이라는 말과 함

께 떠오르는 여러 현실의 변화 이리라. 꽃이
피고 잎이 나오듯 나에게도 무엇이 성취될
듯한 희망을 갖게 한다. 긍정적인 말이 성공
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상
황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럴때
일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
는 것이 좋다. 나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그
래도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한다.



나두섭 (의대 66)

여기에 첨가한
사진은 Canada
Vancouver Is-
land 의 Victo-
ria 근처에 있는
Butchart Gar-
dens 에서 찍
었다.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다르고 지



유희진 (음대99)

/ 신화와음악 /

신화 속의 하프이야기

신비스럽고 영롱한 소리의 악기, 하프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악기 중
하나이다.
기원전 3000년경에 사냥을 하다 활을 쓰
면 튕기며 나는 소리와 그 모양이 발전
하여 지금의 하프까지 만들어졌다. 처음
엔 고작 몇 개의 현을 가진 아치형의 작
은 악기였지만 지금의 하프는 오케스트
라 악기 중에 가장 크고 많은 줄을 가진
악기이다.
지금의 하프는 47개의 현과 7개의 페달
로 구성되어 있고 하프의 페달은 피아노
의 검은 건반이라고 할 수있다 . 즉, 페달
은 7개의 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반음을
조절한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크게 발

전된 악기지만 어쩌면 대중들에게 그만
큼 친숙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프 하면 천상의 소리라고 비
유하곤 한다. 서양에서는 많은 별자리 중
거문고자리가 하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고 전해 내려온다. 이 거문고자리, 하프에
관한 신화는 이와 같다.
고대 그리스의 전령의 신 헤르메스
"Hermes"가 거북껍질에 줄을 달아 하프
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에 또 다른 신 아
폴로가 매료되어 자신의 지팡이를 하프
와 교환하게 된다. 아폴로는 그 후 아들
오르페오에게 이 악기를 주게 되었다. 이
악기를 너무나 잘 다루게 된 오르페오에
게 아름답고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체

가 있었는데 에우리디체는 그만 뱀에 물
려 죽게 된다. 오르페오는 슬퍼하다 그 죽
음의 나라로 가서 하프 연주를 하며 왕과
왕비에게 그의 아내 에우리디체를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고 그의 하프연
주에 넋을 잃은 왕과 왕비가 에우리디체
를 살려주기로 한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둘이 죽
음의 나라의 문을 나갈 때까지 절대 뒤돌
아서 아내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궁금함과 의심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자 에우리디체는 다
시 죽음의 세계로 사라지게 된다.
결국, 오르페오도 슬픔에 빠져있다가 결
국엔 죽게 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우

스가 하프 모양의 별자리를 밤하늘에 남
겨주었다고 한다. 이 비극적 신화는 영롱
하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픈 음
색의 하프랑 무척이나 잘 맞는 신화가 아
닌가 생각해본다.
이 애절한 신화의 주인공 오르페오와 에
우리디체의 이야기는 작곡가 Gluck의 오
페라, Orfeo and Euridice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오페라에서는 이 둘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예전에 이 오페
라 중 한 곡인 'Dance of the Blessed Spirits'
를 오케스트라나 피아노의 반주가 아닌
하프반주로 플루트의 선율에 맞춰 듀오로
연주한 적이 있는데 이 글을 쓰며 자꾸
그 선율이 귓가에 자꾸 맴돈다.

/ 짧은 글 /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다



오(조)봉완 (법대 53)

5월 말이면 필자의 남편 고 오기창 박사 (법대 50) 가 타계 한지 10주년이 된다. 애들 셋과, 그들의 배우자, 손자 손녀 8, 총 15명이 모여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의 일생을 돌아 보려 했다. 그러나 Covid-19 때문에 취소 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에 이 글을 쓴다. 그이는 결혼 50년과 9개월 만에 만 79세의 나이로 떠났다. 본 인에게는 그이가 첫사랑 이었다. 법대 2학년 때 도미/유학 온지 1년반만에 그이를 만나, 만 2년뒤때쯤 사귀기 시작하였다. 철부지 학부 3학년으로 힘든 대학에서 서투른 영어로 공부 하는데 매달려, 남친 사귀는 것은 염두에도 없었던 중 소용돌이 바람에 휩쓸린 것 같았다. 그이의 타계 10주년이 다가 오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난다.

첫 3초



1957년 가을, 뉴욕
미국에서의 둘째 신 학년이 시작했던 때
바나드 대학에 유일 무이한
한국 여학생이 왔다고 계속 떠들썩 했다
여러조직체에서 가입하라는 권고가 많았다.
학생회를 택했다.
첫 회의 중
당신이 나타났다
다른 학생들 같이 않게
멋진 정장을 하고 있었다
뭘 하길래 저렇게 입었지?
나이기도 많이 보이네...
당신의 룸메이트 가 당신을 소개했다
컬럼비아의 대학원 학생이나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근무 중이라고
당신은 한사람, 한사람에게
정중하나 간단히 인사했다
예의가 바른긴 한데 너무 심각하다.
유-모도 적고

단 하나의 여학생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기노릇 하고 있던 나에게
“얼굴 좀 봅시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쳐다 보니 당신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와... 나쁘지 않네...
당신을 똑바로 본 처음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유심히 보았다
3초도 안됐던 사이에 눈길을 돌렸으나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그후, 가끔 당신이 궁금해 졌다
뭘 하고 있나? 잘 있나?
그렇지만, 연락은 안했다
여자가 먼저 하는 것 아니니까
염려도 됐다. 멋진 외교관이
학부학생을 거들떠 보거나 하려나?
모임에서 보면 만나고, 인사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사촌오빠와 경기고와 서울대 선후배라는 것
좋은 소식이라 생각했다
그럼, 알아볼 필요도 없겠네...
오빠를 동반하여 경기 동문화 주최
크리스마스 파티에 갔다
또 보았다
무척 반가워 했을 뿐, 또 헤어졌다
그러다 해가 바뀌고 봄이 왔다
총영사관 주최 행사에 역할 이 배당되어
첫 연습에 가서 또 봤다
당신은 놀라운 듯 하면서 무척 반가워했다.
아직 여기 있었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소식도 없더니 웬일이야?
중간에 쉬는 다과시간에
앞에 나타났다
대려다 주겠다고 우기길래
꼭듯이 거절했다
같이 온 사람하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놀란 표정이었다.

“문제없이 해결한다”고 선언하고
기다리라 했다.
두고 보자
당신의 단호함에 어의가 없었다.
순식간에 다시 나타나 해결했다고
큰소리 치더니
기어코, 끌고 택시를 잡아탔다
차를 뉴저지에 두고 왔기 때문이라고...
자기 차도 안 가지고 왔으면서
자신만 남치는 허풍쟁이 아니야?
기숙사에 채 못 가서 택사에서 내려
캠퍼스 비어 홀에 끌고 들어 갔다
비어 마신 일 없다 하니
“그럼, 코-크 마시고 내 얘기를 들어 주세요”
“그쪽 이야기들요”?!
“네, 나의 이야기! 그대가 나를 알게 됐으
면 해서요”
네?!

가슴이 뭉클 해지며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신은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이야기 했다
때로는 손을 내밀어 뺨 내리는
나의 손을 잡으면서...
나의 기숙사의 만종이 가까워져서야
일어 섰다

헤어지기 전에
다음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다짐을 했다.
“꼭 봐요, 꼭”
약속을 받고서야
브로드웨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오래전 그 첫날, 그 짧은 3초
그후에 많이 생각했었나 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소식도 없더니...
그 첫3 초가 사랑의 시작이었던가 보다

2020년3월



/ 부고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이기덕 동문



이기덕(농대56)
동문 4월30일 소
천했다. 지난 5
월5일(화) 뉴욕
의 Moritz Funeral
Home에서 미망
인 이준(간호대)
동문 등 유가족들과 가까운 지인
들이 모여 고인이 가는 길 애도했
다. 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
해 최소한의 인원이 거리를 유지
하며 장례절차를 함께 했다.

(고) 배인자 동문



배 인자(간 호 대
62) 동문이 5월
1일 소천했다.
배인자 동문은
1966년 간호대
를 졸업, 남가주
에서 RN으로 근
무했다. 또한 서울대 남가주 합창
단 단원과 이사를 역임했다.

(고) 변승지 동문



변승지 (사회 64)
동문이 3월13일
소천했다. 변 동
문은 지난 85년
시카고 한빛교회
담임목사 청빙받
아 미국으로 이
민, 94년 맥코믹신학대학원을 졸
업하고 95년 미국장로교(PCUSA)
중서부한미노회 노회장을 역임했
다. 2001년 부터 10여년간 오렌지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였
다. 유족으로는 2남1녀 등이 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돈돈히 세워지는 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



김성호(법대 64)

/ 종교와 세계 /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가한 시간을 갖게 된 요즘 지난날 궁금했던 일들이 생각났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될 때(AD 135년)까지 그들은 얼마나 가나안에 거주했을까? 2000년 동안이나 세계 각지를 유랑하던 그들은 어떻게 가난 안으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 귀환한 후 원래 그 땅에 살던 아랍 원주민을 좁은 구역 안으로 몰아넣고 그들만의 변역을 구가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프랑스 작가 장 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검문하는 뉴스를 보면서 문득 출애굽기의 구절이 생각났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지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라(출애굽기 22:21~24). 실로 무서운 경고지만 누구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다.

1.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창세기 12:1)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 온 것이 75세 되던 해였고 그의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 아내를 장사할 땅조차 없어 헛 족속에게서 매장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 중에서 매장지를 주어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34)”라 하여 본인은 이방인 나그네요, 헛 족속이 그 땅의 주인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출애굽에 의한 가나안 정복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한 유대인이 광야의 40년 방황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언제인가?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열왕기 상 6:1)”라고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BC970~930년) 4년은 BC966년이고 여기에 480년을 더하면 BC1446년, 여기서 광야에서의 40년을 빼면 BC1406년이 된다. 출애굽 연도가 BC1446년이라는 설에는 강력한 이설이 있다. 유대인의 애굽거주기간이 430년이라는 설(출애굽기 12:40 맞소렛 사본)과 215년이란 설(70인역)이 있기 때문이다.



반란(BC166)에 의해 독립을 쟁취해 하스모니안 왕조를 BC165년에 세우지만 다시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BC63년)을 당한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 독립국가는 완전하게 소멸하게 된다. 이민족의 지배하에서도 계속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은 AD70년과 AD135년 2차에 걸친 유대인반란으로 야기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다.

4. 시오니즘에 의한 가나안 재 점령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던 가나안 땅에 유대인 국가(이스라엘)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19세기 후반 시오니스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왔을 때 이들이 발견한 것은 미경작의 무인지대 뿐이었다. 아랍인이 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은 이 땅이 터키에 의해 400년 동안이나 봉건화되었고 식민지적 방식으로 착취 당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대국민기금은 팔레스타인의 경작 가능한 80만 헥타르 중 30만 헥타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오스만 터키제국은 해체기에 접어들었고 유럽 열강은 제국

주의적 팽창정책에 몰두해 있었다. 유럽인들은 당시 다른 지역보다 수월하게 유럽 밖의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에 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미개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시오니스트들이 하게 됐다. 이러한 국제 정치 현실 외에도 유럽에 팽배해 있던 반유대인 정서도 가나안 땅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촉진하게 했다. 자국 안의 유대인을 국경 밖으로 추방하고 싶은 반유대인 정서는 유대인의 가나안 귀환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1878년에는 가나안에 사는 유대인 비율이 3.2%약 1만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25년) 이삭은 60세 야곱을 낳았고(60년)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했으니 이때까지가 215년이다.

2. 215년간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이 BC1446년 출애굽해 40년간의 광야 방황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BC1406년이다.

3. 이때부터 2차 유대반란(AD135년)으로 야기된 디아스포라까지가 1541년 간이다.

4. 여기에도 야곱의 애굽 이주 전 유대인의 가나안 거주기간 215년을 더하고 바빌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 귀환까지의 142년을 빼면 1614년이 된다. 대체로 유대인은 1600년이란 세월을 가나안에 거주한 것이 된다. 인류 최초로 농경이 시작(BC 8500년)되고 가축을 기르(BC8000년) 지역이 가나안이 포함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점(제러드 다이아몬드 저 ‘총, 군, 쇠’)을 고려해 보면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유대인이 출애굽해 최초로 점령한 여리고 성도 이들이 점령하기 훨씬 전(BC3000년)에 이미 성벽으로 방어돼 있는 도시가 존재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봐도 가나안 원주민의 거주기간이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은 3번에 걸쳐 가나안을 진입하는데 3번 모두 빈방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남의 땅에 들어간 것이다.

첫번은 아브라함에 의한 가나안 이민이지만 둘째는 가나안 7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침입이고 셋째는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던 아랍인의 거주지역을 시오니스트들이 잠식해 점령한 것이다.

제 글에 대해서는 이론과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역사 서술에 있어 사실을 중요성을 강조한 레오폴트 폰 랑케에 대한 E. H. 카의 주장으로 제 생각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실이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선택한 사실만 살아 남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 참고 서적 : 뉴튼슨 관주 주석성경/성경과 5대 제국/신구약 중간사/아랍과 이스라엘 그 분쟁의 뿌리를 파헤치다/총, 군, 쇠/역사란 무엇인가/Archaeology of the Bible: Magnus Magnusson/너희도 신처럼 되리라(에리히 프롬 저)

여기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은 과연 얼마나 오래 가나안 땅에 살았나를 생각해 보자.

1.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영목(공대 59)

/ 정치유머 /

장기 한수 무릅시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은 사실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시작은 문양재라는 실세의 마누라 김숙숙이 느닷없이 TV의 음식프로그램에 출현해서 대동강식 죽 요리 만들기를 시연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에 문양재가 팔으로 메주를 쏘내도 지당한 말씀이요 하는 유시시와 콩으로 메주를 쏘내도 웃기지 말라 하는 홍표표가 등장한다. 여기에 김숙숙의 요리 강습이 TV에 방영된 바로 그날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유시시는 자기가 여지껏 맛을 본 죽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죽은 먹어 본적이 없다고 극찬을 하였고, 홍표표는 죽 췌서 개준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며 죽을 한 숟갈 먹어보니 구역질이 나서 곧장 뱀어 죽을 그냥 개밥 그릇에 쏟아 버렸다 하면서 그게 무슨 음식이나 개밥이지 하며 혹평을 하였다. 그리고 물론 이어서 문양재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에 뜨거운 응원에 여론전으로 시끄러웠다. 그러던 중에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나 할까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문양재의 오른팔이라고 할 조국조의 마누라 정심심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세아 대학교 요리학과와 강 모라는 조교가 김숙숙의 대동강식 죽 요리법은 자기가 개발한 요리법이 아니라 정심심의 레시피를 정심심이 김숙숙에게 몰래 갖다 준 것이라고 하며 양심선언을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심심의 요리 책자를 든 사진을 SNS 올렸다. 다음 순서는? 뻔하지 않은가? 홍표표는 남의 지식을 도용한 중요한 범죄행위라고 김숙숙을 고소를 했고, 유시시는 이것은 홍표표와 아세아 대학의 강 모 조교가 짜고 가짜 뉴스를 터뜨린 음모이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세아 대학 강 모 조교는 홍표표의 사돈의 18 촌으로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 더구나 겨우 고등학교 졸업 후 자장면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로 있으면서 석사과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니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며 초점을 학력, 컴퓨터 조작 등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하면서 초점의 방향을 전환하며 집중포화를 터트렸다. 다음 날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남의 지식 훔치는 김숙숙은 사죄하라 물러나라 대동강식 죽 요리 선전은 북한의 김정은의 지령인가 아닌가, 밝혀라, 밝혀라. 엉터리 죽 요리로 한국의 전통요리의 자존심을

망친 김숙숙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면서 항의 데모로 요란했는가 하면 서울지방 검찰청 앞 광장에서는 홍표표와 강 모 조교의 연결 그리고 음모를 밝혀라, 모 조교의 학사부정 취득을 조사하라, 등등의 구호를 외치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홍표표를 감싸는 검찰을 개혁하라 개혁하라는 구호로 변질되어 외치기 시작했다. 광화문과 서울 지방검찰청 광장에서 데모가 끊어지지 않고 언론도 온통 이 기사로 도배가 연일 계속되었다. 급기야 이제 이 광란과 혼동을 끝내야 한다며 이를 끝낼 수 있는 분을 모셔 그분의 결정에 따르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던데 모시자는 분은? 그거야 뻔하지 않은가? 글쟁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작가인 이모 라는 분이였지.. 그래서 여론의 떠밀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로 추대 되었고 그래서 급기야 나는 모든 언론 방송인 앞에서 회견을 하게 되었다. 나는 소리 높여 일갈 하였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은 머리가 텅 빈 유시시와 홍표표 두 바보들이 벌인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을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으로 줄긴 탓입니다. 우선 이들을 이사회에서 퇴출시키기 전에 이 두 바보들이 싸워서 한 명을 먼저 퇴출시키는 싸움 구경을 좀 합시다. 그런데 세대는 변했습니다. 권총이나 펜싱으로 하는 결투의 시대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모두 내가 내릴 결투방식을 꽤나 호기심으로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으며 외쳤다. “결투는 장기대결입니다. 일시는 3 월 1 일 12 시, 장소는 파고다 공원. 응원은 허락하나 10 미터 거리를 지켜야 하며 장기시합 중엔 절대 침묵입니다. 그리고 경기규칙은 단 하나 일수불퇴(一手不退)다 시 말해서 절대로 무를 수 없다 입니다.” 장기로의 결투의 날 파고다 공원에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둘이 장기판에 마주 앉았다. 유시시가 시시 웃음을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붉은색 한(漢) 장기 알은 내가 잡고 당신은 푸른색 초(楚)를 잡아야겠지요?” 이에 질세라 홍표표가 이렇게 응수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 이말 문양재에게서 절제 받고 한 말 보니 시합 중에 인사동포장마차음식협회 회원단 중 한명이 눈빛으로 홍표표에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공평하지도 정

고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결국 나는 중재자답게 이렇게 이야기 했었지. “자 자 이제 말싸움은 그만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빨갱이를 잡든지 푸른색을 잡든지 하도록 하지 자 시작하지. 가위바위보!” 유시시가 흥을 쥐고 시작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예상외로 홍표표가 살살 눈웃음을 치면서 빈정대기 시작했다 “아이 유시시! 문양재 임기가 언제 끝나지 아니 언제 물러나지? 2 년 후라..그러면 김숙숙의 요리 레시피 위조 고소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할 때에는 문양재가 물러난 후가 되겠네, 그리고 정심심 사건 않은가? 글쟁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작가인 이모 라는 분이였지.. 그래서 여론의 떠밀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로 추대 되었고 그래서 급기야 나는 모든 언론 방송인 앞에서 회견을 하게 되었다. 나는 소리 높여 일갈 하였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은 머리가 텅 빈 유시시와 홍표표 두 바보들이 벌인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을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으로 줄긴 탓입니다. 우선 이들을 이사회에서 퇴출시키기 전에 이 두 바보들이 싸워서 한 명을 먼저 퇴출시키는 싸움 구경을 좀 합시다. 그런데 세대는 변했습니다. 권총이나 펜싱으로 하는 결투의 시대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모두 내가 내릴 결투방식을 꽤나 호기심으로 기다리는 것 같아! 하면서 맞수를 두니 자연히 유시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장기를 1초 만에 맞장을 두었다. 이렇게 몇 수를 두었냐? 그러다가 그만 유시시가 실수로 외투수를 두려다가 아차 하며 다시 장기 알을 들러던 순간 홍표표가 번개같이 말(馬)을 들어대면서 소리쳤다. “장군!”하고 외쳤다.

유시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 내가 궁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바! 유시시! 일수불퇴야! 무르는 것 없애! 일수불퇴! 장군 반야!” 나는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쳤다. “홍표표 승! 유시시 패! 옛날 김두한이 시절 종로건달들의 불문율이 있었다.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하고나서 승자는 종로의 오야부, 패자는 종로를 떠나야 했지. 우레도 그리 약속했다. 오늘로서 유시시는 언론계에서 떠나서 조용히 살라!” 내가 이런 결정을 알리고 있는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순간 짧은 녀석 3 명이 장기시합 단상에 뛰어 들면서 장기판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미대사관돌격단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는 공평하게! 시합은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를 위해 외치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 시합 중에 인사동포장마차음식협회 회원단 중 한명이 눈빛으로 홍표표에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공평하지도 정

당당 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시합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은 ? 휴위!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이었다. 3.1 만세운동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온 종로바닥을 덮쳤다. 홍표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아무개의 판결을 무효라고 떠드는 것이 정의냐! 정정당당을 항상 외쳐오던 너희들 심판 결정의 불복이 정정당당이나! 하고 있었는데 가만 반대한 유시시측에서는 홍표표와 심판의 짜고 치는 고소통이나! 눈빛 훈수가 원말이나! 이 아무개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외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두 응원집단들이 나의 아파트 단지로 몰려와 계속 외쳐대고 있었다. 그 외쳐대는 구호가 나 글쟁이가 이 아무개 물러나라, 하는가 하면 한 편에서는 이마무개 지키자 하는 외침으로 아파트 단지가 아주 요란했다. 이렇게 며칠 지속되자 급기야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나에게 물려와서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도 사실 수면불감증으로 지쳤다. 그래서 급기야 나는 언론인들 앞에서 회견을 가졌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나라 정의를 지 못한 나라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곳을 떠나 미국으로 가서 살까 합니다.”

나의 <finishing punch>
셋! 비밀..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 아파트 앞에서 항의집회로 시끌시끌 할 때에 정심심의 남동생 정양심은 은밀히 나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는 누런 봉투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무개 작가님! 까마귀 노는 곳에서 이 작가님 같은 백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죽’ 수는 회사라는 어제 설립한 회사 주식 4 만주입니다. 액면가 천원에 10 만주 발행의 40 % 이지요. 이 증권 액면가 천원을 십 원에 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미국에 가서 조용히 여생을 즐기세요
<말의 꼬리>
여러분! 나 뭘 웅돈 중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 무용담을 더 자세히 듣고자 하는 나와 가까운 분들 나를 찾아오는 것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일 때에는 항상 삼겹살에 소주는 대접하여 드리지요. 단지 쉼! RS! 애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류정순(가정 69)

/ 예술과 생각 /

‘투란도트’ 다시보기

파바로티가 하이 C의 높은 음으로 ‘빈체로.’라고 뽐아 올리는 유명한 <Nessun dorma 아무도 자지 말라.>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리아다. 중국 어느 나라의 왕에게는 자녀가 투란도트 공주 하나뿐이라 공주가 결혼하여 후계자를 낳기를 온 나라가 기원하고 있으나, 공주는 결혼을 거부한다. 결혼 압력이 드세지자 공주는 수수께끼를 내고 이것을 맞히는 사람과 결혼하겠지만 실패하면 목을 베겠다고 했다. 이미 12명의 타국 왕자들이 참수된 후에 칼라프 왕자가 도전하여 수수께끼 세 개를 다 맞춘다. 지적 대결에서 진 공주가 자존심이 상하여 결혼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왕자는 이를 날 동이 트기 전에 “자기 이름을 알아내라.”는 한 개의 수수께끼를 내고, 공주가 맞히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에 공주는 “오늘 밤 그의 이름을 알아내기 전에는 아무도 자지말라”는 명을 내린다. 왕자는 네손 돌마를 부르며 승리를 확신한다. 그 후 두 사람은 독대하여 밤을 같이 보낸다. 이 과정에서 공주는 사랑에 눈뜨게 되고, 왕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힌다. 공주는 이름을 알아내었다고 기뻐하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그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결혼에 골인한다. 그런데 푸치니가 끝마치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알파노가 마지막 장을 완성한다.



오페라 투란도트의 한 장면

중국문화의 이해가 아쉬운 중국 배경의 ‘오페라’

공주 내면의 갈등 표출없이 막내린 클라이막스

동양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바탕 새 버전 기대

보이지 않는 암담함을 통렬한 한 맺힌 아리아로 표출해서 관객의 심금을 울려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랑밖에 모르는 푸치니’는 두 사람의 ‘비사랑 사연’은 무시한 채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던 시녀 류의 왕자에 대한 사랑의 아리아만 들려준다.

둘째로 푸치니는 1막 끝에 신비롭게 등장하여 형을 신고하는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한 왕자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것으로 만들지만, 왕자는 이 수수께끼 풀기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강국인 중국공주의 부군이 됨으로써 주변 소국인 조국을 되찾아 백성을 구하고, 아버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본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는 사랑뿐만 아니라 조국의 미래, 효,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가치 전체를 걸고 수수께끼 풀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셋째로 푸치니는 공주를 남성혐오증에 걸린 냉정하고 거만한 여자로 캐릭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는 부군과의 권력투

쟁에서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은 조상 로링으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자기 스스로 천자가 되어 정치를 잘 해보겠다는 정책적 야심을 가지고 있고, 결혼은 그 꿈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같은 여권신장론자이다. 중국에서 공주보다 더 나은 신분의 남자도 없고, 더 잘 교육받은 남자도 못 본 공주는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러나 자신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과 영웅적인 기질의 칼라프 왕자를 대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다. 더군다나 출중한 외모, 입증된 지적 능력이나 영웅적인 기질 이외에도, 신분이 노출되면 공주가 죽어지지 않더라도 그의 조국의 집권자가 가만두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는 배포 크고 솔직한 이 남자의 인간적인 매력에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다.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는 왕자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공주에게 말해주는 부분이다. “난 칼라프요. 정 원한다면 날 죽이시오.”라고 말하자 공주는 패배자로서의 자존심을 만회하고 승기를 잡은 것이다. 이긴 것을 안 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

공주가 어떻게 할지 망설이며 내면의 갈등을 표출하는 아리아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만 12명의 왕자들을 처형할 땐 안 그랬는데 이번엔 왜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 하고 있지? 이 느낌이 사랑이야? 아님 존경, 경외심 혹은 동정심이야? 이 사랑을 받아들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없어. 그럼 내 꿈은? 나도 아기를 낳고 싶어. 대를 이을 손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저 남자는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통치 아래에 잘 적응하고 살까? 장대한 아리아로서 공주의 내면, 여권신장의 역사를 만들고 싶은 꿈, 역사관 그리고 와신상담하는 왕자의 한맺힌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느끼는 특별한 동정심을 장대한 아리아로서 관중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푸치니는 이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고, 알파노도 사랑밖에 모르는 푸치니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그냥 “그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극을 끝맺는다.

푸치니 사후에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쓴 작품들이 여러 편 있었으나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점들을 반영한 작품은 아직 없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는 푸치니의 이 작품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동양문화권의 대본가와 작곡가에 의하여 새로 쓸 필요가 있다. 칼라프 왕자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신분을 숨기고 조국의 재건을 꿈꾸며 와신상담하는 한국 왕자로 설정하여 쓴 대본으로 새로 작곡하면 어떨까?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 칼라프 왕자는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일본을 정벌한 후 서울에 머물면서 통합 한국과 일본을 통치하도록 하고, 투란도트는 중국의 천자로서 선정을 베풀으로써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가끔 기러기 가족처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자녀도 여러 명 낳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 기록서적 /

통합의 길



김동성(문리 71)

“진영논리를 벗어나, 이분법을 초월하여 하나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세계 인류에게 널리 복을 주는 홍익인간의 날개를 펼칠 일 때이다. 이 꿈의 선장은 통합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6) 이듬해부터 미국에서 대학생 선교와 지성인 복음화 선교사역을 감당해 온 야곱(jacob) 김동성 동문(목사)이 혼돈과 분열의 세계에 제시하는 <통합의 길>을 펴냈다. 김 동문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문명들 간의 충돌을 피하게 해 줄 ‘성서적 통합의 신학’과 ‘세계통합 문명을 건설할 방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해체 위기의 사람들과 가정, 한민족과 세계를 위한 <통합의 길>은 20여년간 연구의 결과물이다.



김 동문은 톨레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노스팩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수학하는 등 미국에서 사역과 함께 학업에 계속 정진해 왔다. 현재는 인디애나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2006년 미국 연약복음교단(ECC)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시카고 광역시에 영아권 선교사역 순생명교회(Full Life Christian Fellowship)를 창립해 담임목사로 지금까지 시무하고 있다. ‘성서적 통합연구원’을 창립해 원장 겸 발행인으로 재직 중이며, 선교학술지 <성서적 통합>을 발행하고 있다.

<출처=크리스천 투데이>

예술가를 위한

/ 인물 /

정신분석과 창작



강창욱(의대 55)

이론과 지식, 경험을 포함했음은 물론 이드(Id), 에고(Ego), 슈퍼에고(Superego) 사이의 역동 상호관계, 꿈과 창작의 관계, 에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슈퍼에고, 심리적 성장, 의식, 무의식, 전의식, 정신분석 방법의 기초 또 정신분석이 모든 예술 창작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실례實例를 들어서 설명했다. 이 책은 문학을 비롯하여 모든 예술을 창작하

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전문서적이며 대학교재로도 유용한 내용들이다. 창작인은 꿈의 언어를 채집하며, 그들의 무의식은 창작의 금광이라고 했으며 이드의 욕구가 가면을 쓰고 표출되는 것이 창작과 정이라고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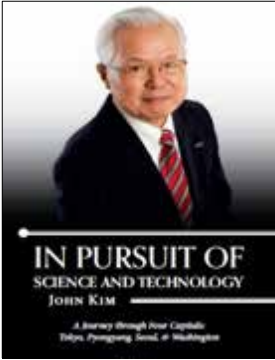
강 동문은 숨겨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오히려 인간행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론을 펴고 있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찾아가는 탐험이라고 말한다. 북극의 얼음덩이가 물 위에 나와있는 부분은 지극히 작고, 물 아래 감추어진 부분이 얼음덩이의 90 퍼센트가 되는 것과 같다. 정신분석이나 문학, 예술은 이 감추어진 인간의 심리, 무의식의 상태를 찾아가고 문학, 예술 작품, 창작(Creative Writing)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신분석이나 문학예술은 결국 인류에 무엇을 기여하나? 강 박사는 환자의 치료라고 말하면서 문학, 예술도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과 문학인은 서로 가깝다. 그는 율동주의 시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시의 치유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율동주의 아픔을 치유했지만 그의 시를 읽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명약이라고 주장한다. 강박사는 위싱턴 지역의 아주 작은 모임인 율동주문학회 회원인데 율동주 문학 창간호에도 그의 한글, 영문 글이 발표될 예정이다.

저자는 해군군인관 복무후 1965년 도미하여 코네티컷 Fairfield Hospital에서 정신과 교육을 마치고, Yale University Hospital과 The Selon Institute에서 헬로침을마

/ 회고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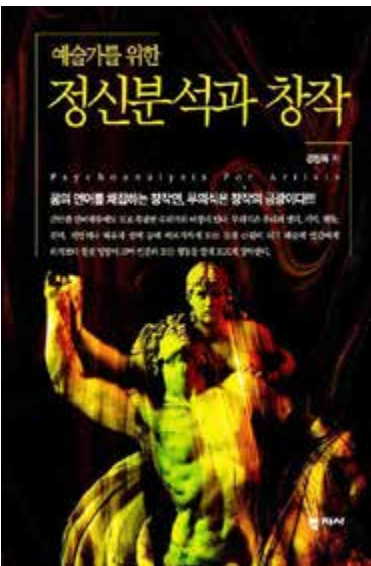
IN PURSUIT OF SCIENCE AND TECHNOLOGY



김찬규(공대 54)

김찬규 동문이 회고록 IN PURSUIT OF SCIENCE AND TECHNOLOGY(과학과 기술을 추구하면서)을 출간했다. 이 회고록은 전기 공학자인 김찬규 박사가 과학과 기술의 세계를 망라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상을 거친 집대성이다. 이회고록의 대부분은 공학과 물리학의 과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학계, 미국 공업계,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소에서 남긴 그의 일기 및 기술논문을 밑바탕으로 해서 썼다. 글쓴이의 생애를 회고한 과학 기술의 내용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회고록에는 그의 가족

과 개인의 이야기도 첨부 되어있다. 글쓴이는 과학, 기술, 공학의 문제를 일반 독자를 위하여 설명 내지 해석하려고 노력 했다. 한편 이회고록은 동경, 평양, 서울 그리고 Washington의 네 나라의 수도를 돌아다닌 한 사람의 여행기이기도 하다. 1925년에 부모님의 일본 동경 예로의 이주로 그는 그곳서 출생하여, 이차 대전 중 1941년에 아버님의 고향인 평양에서 소학을 다녔고, 격동기 한국전쟁 1950년대에는 서울시 경기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1958년에 도미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을 수학하였고 Washington에서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회고록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경쟁을 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 회고록은 정치, 경제, 과학의 격동기인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 초반에 달하여, 동아시아와 미국에서 그가 경험한 일들이다. 글쓴이는 그의 80평생을 첨단군사 기술에 참여 했다. 이 회고록은 그가 과학 기술에 기여한 생애와 인류의 복지 향상을 이바지한 일들을 도리켜 본 글이기도 하다.



쳤다.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외래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또한 1999년까지 Saint Agnes Hospital에서 정신과 과장을 오랫동안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연방정부 사회보장부 정신의학 자문을 맡고 있다. 그의 저서에는 영문 'The Last Journey of C.S. Lewis' 'The best Stories of Yi Kwangsu' 그리고 '기도와 영혼의 숨결' 등이 있고 문학 논문으로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과 정신의학(춘원연구학회)'등이 있다.

"지난 5월호 23면에 실린 시간소개 "Grandpa Confucius and I"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황 교수라고 지칭된 내용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황 동문은 중학교 수학선생이었음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편집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 잡습니다."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 계 / 기 술 / 전 자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이종도 (공대 66)
T: 626-448-7870 / F: 626-448-3955
www.leedco.com/ leedco@aol.com
3380 Flair Dr. Suite 225 El Monte, CA 91731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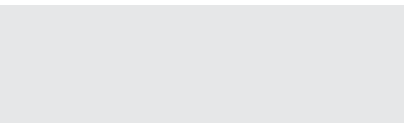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여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s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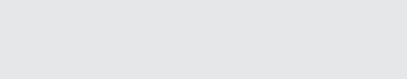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의료 / 치과
/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 . 창 . 회 . 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역대회장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	818-450-7868	yongjunechoi@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월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박윤수 (문) · 감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윤락 (공) ·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 명예회장: 윤상래 (수)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t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종수 (수), 주중광 (약)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집행부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사무총장(서리):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육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육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육자 (LA)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원 (공), 하용출 (문), 김흥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대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지홍민 (수의대 61)	215-635-2700	hmchi876@hotmail.com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사대 72)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e@umkc.edu	Sep-Aug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백승원 위장내과

“위장내과만 전문 진료합니다”

원장 백승원 (의대 73)

포트리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에디슨

732-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EVERLY CARDIOLOGY GROUP



김일영 M.D (의대 65)

www.beverlycardiology.com T: 323-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INC.

회장 이 병준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